

2019. 9. 27. FRI - 9. 29. SUN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국 제 무 형 유 산 영 상 축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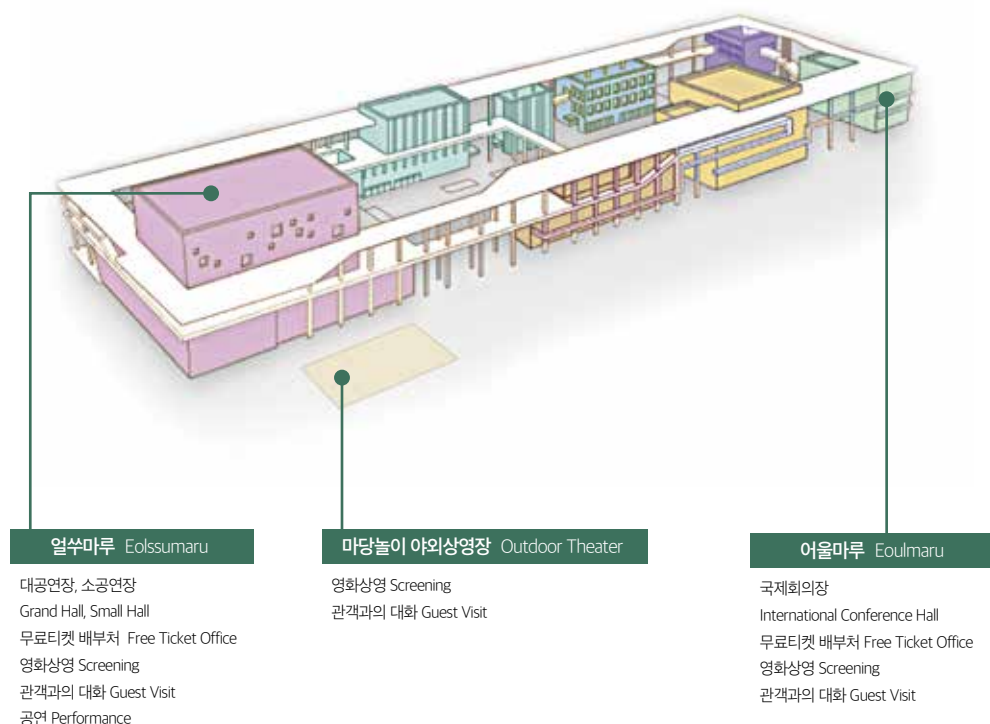
행사공간 안내

Venue Map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함께하는 만남과 창조의 공간이자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전승의 공간, 또한 공연과 전시, 체험과 교육, 아카이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located in the Hanok village district in Wansan-gu, Jeonju City, will consist of the stages, exhibition rooms, archives, educational and public experimental space for intangible heritage to be an anchor system which passes down and expands the intangible heritage.

1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

Address : 95 Seohak-ro, Wansan-gu, Jeonju City, South Korea

전화 : 063-280-1400

Phone : +82-63-280-1400

www.nihc.go.kr

2019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IIFF 2019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9.27. FRI-
9.29. SUN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iff.iha.go.kr

목차 CONTENTS

환영사	WELCOME SPEECH	04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09
개·폐막식	OPENING · CLOSING CEREMONY	10
아리랑	ARIRANG	14
재·발견	RE:DISCOVERY	20
포커스	FOCUS	27
- 임권택 감독 특별전	- Director IM Kwon taek	28
- 북한영화 특별전	- North Korean Cinema	48
IIFF 단편	IIFF SHORTS	52
- 중앙아시아 단편 다큐멘터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ICHCAP Special	54
-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 Korean Short Animations	60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지원작	ARCHIVE PROJECT: INTANGIBLE HERITAGE CONTENTS PRODUCTION SUPPORT	64
무형유산유튜브 영상 공모전	IIFF YOUTUBE CONTEST	70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	72
- EIDF	- EIDF	74
- 문화유산채널	- K-Heritage TV	76
- 무형유산 VR	- Intangible Heritage VR	78
부대행사	EVENT PROGRAM	82
- 플리마켓 + 푸드트럭	- Flea Market + Food Truck	
발행정보	PUBLISHING INFORMATION	84

환영사

WELCOME SPEECH

문화재청장

정 재 숙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ung Jaesuk

깊어가는 가을, 전통문화의 고장 이곳 전주에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록이 있어 우리에게 역사가 있습니다. 기록행위는 그 방식과 방법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고, 우리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복원하고 기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우리의 무형유산 뿐 아니라 세 계 각국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우리에게 친숙한 영상기록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올해는 과거의 무형유산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재해석하는 작업과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결합한 섹션들로 일정을 알차게 채웠다고 하니,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마을 옆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추억 조각을 마음 속에 그리고 어딘가에 기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nder the high autumn sky made even more beautifully blue by intimations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lm Festival (IIFF) held here in Jeonju, the hub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History exists because of records. The manners and methods of recording have diversified and evolved, and an important mission for us to undertake today is to find, restore, and record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our culture. IIFF is a venue wherein through the familiar format of film we encounte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Korea and that of various nations around world. This year, we will be presented with assorted perspectives on and interpretation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modern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rough a schedule brimming not only with film but also offerings that integrate diverse contents with new technologies. I offer my sincere thanks to Governor Song Ha jin of Jeollabuk-do Province, Mayor Kim Seung su of Jeonju, and the IIFF staff for their full-fledged cooperation for the success of this festival. At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located next to the Jeonju Hanok Village, I hope you will be able to take away a pie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yourself and record it in your heart and memory. Thank you very much.

인사말

GREETINGS

국립무형유산원장

김 연 수

Director of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Kim Yeonsoo

본 원이 주최하는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형유산은 인류의 발자취가 담긴 우리 모두의 바탕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수세기에 걸쳐 전승되어온 소중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종합정책·문화기관입니다.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무형유산을 친근하고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영상, 공연, 전시로부터 체험공간과 영상분야 및 기록화 전문가들의 친교활동의 장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행사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영상축제의 주제는 '무형유산 다시보기'입니다. 영화 속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재·발견>, 과거 문화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영화와 공연을 결합한 <아리랑>, 중앙아시아 단편 기록다큐, 한국 단편 애니메이션,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 지원작으로 구성된 <IIFF 단편>, 임권택 감독 특별전과 북한영화 특별전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리고 문화유산 채널, 무형유산 VR, 찾아가는 EBS국제다큐영화제 작품들로 구성된 <특별상영> 등 총 5가지 섹션에서 8개국 26편의 작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선보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서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무형유산을 다시금 발견해 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 invite all members of the Korean public to the 2019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lm Festival (IIFF), hosted by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IHC). Intangible heritage is living heritage upon which humanity's footprints are etched. It is thus our common bedrock as well as our future. Found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systematically protect valuable intangible heritage that has been passed down for centuries, NIHC is the world's first ever comprehensive policy and cultural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intangible heritage. IIFF is a multidisciplinary cultural festival comprised of films,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hands-on cultural experiences to offer ready and easy access to intangible heritage. It also serves as a venue for film and archival experts to socialize and network. The theme for the sixth annual IIFF is "Rethinking Intangible Heritage." There are 26 films from eight countries in the following five sections: RE:DISCOVERI (encountering intangible heritage in films), ARIRANG (merging film and performance through modern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intangible heritage), IIFF SHORTS (comprised of short archival documentaries from Central Asia and short animated films from Korea), FOCUS (featuring Im Kwon taek's works and North Korean films), and SPECIAL SCREENING (consisting of works of VR, K-Heritage TV, and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Autumn is deepening at NIHC, set against the beautiful backdrop of Hanok Village. I hope this festival's diverse offerings serve 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you to rediscover intangible heritage that is around us. I ask the Korean public for your interest and support. Thank you.

축사

CONGRATULATIONS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Governor of Jeollabuk-do

Song Ha jin

반갑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 창익문화가 숨 쉬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국립무형유산원 김연수 원장님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사무국,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무형유산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영화에 담긴 무형유산을 조망합니다. 일상 속 무형유산을 영상으로 구현한 8개국 26편 영화와 부대 행사를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존과 전승에 대한 기록도 살핍니다. 한국영화의 가장 임권택 감독님은 특별전을 비롯해 관객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임 감독님은 101번째 작품으로 지난 2011년 작품 <달빛 길어올리기>를 통해 천년 한지의 미학을 전주 한지장안을 통해 조명한 바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무형유산은 민족적 삶의 담론을 간직한 정수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전국 최다 총 100건(국가 11건, 도 89건)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정체성을 일깨우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위한 새로운 문화상품 육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무형유산을 지키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모쪼록 이번 축제가 무형유산의 재현과 기록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키고, 나아가 문화강국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to all.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sixth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lm Festival (IIFF), held in Jeonju, Jeollabuk-do, the home of cultural creativity. I would like to thank Director-General Kim Yeon su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ultural Center (NIHC), the IIFF Secretariat, and others involved in putting this festival together. This year, the IIFF showcases intangible heritage in films under the theme of 'Rethinking Intangible Heritage.' It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and examine records of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through 26 films from eight countries that feature intangible heritage in everyday life. Im Kwon taek, one of Korea's foremost film directors, will meet the audience in person and through a special program featuring his films. His presence is especially meaningful as his 101th film Hanji (2011) examines the aesthetic value of hanji, Korean traditional paper that is said to last 1,000 years, through a master hanji maker in Jeonju. Intangible heritage is the essential discourse on a people's way of life. North Jeolla province is currently home to 100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11 national, 89 provincial), the largest number among all Korean provinces. Our province has diverse policies in place to preserve and revitalize intangible heritage, which instills pride and awakens a sense of national identity in all generations. Of note, we are planning to develop new cultural products for the 2023 World Scout Jamboree in Saemangeum. We will continue to do our utmost to protect and pass down our valuable intangible heritage. I hope this festival serves to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by recreating and recording intangible heritage and to elevate Korea's global standing as a cultural powerhouse. Thank you.

축사

CONGRATULATIONS

전주시장

김 승 수

Mayor of Jeonju City

Kim Seung su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영화를 중심으로 아카이브와 공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영화 축제입니다. 지난 2014년 첫 개최 이래로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무형유산에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문화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무형유산이 주제인 국내외 영화·영상의 상영과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의 영상과 음원을 활용한 다큐멘터리·음악 제작 지원, 무형유산 영화와 국악·뮤지컬이 함께하는 특별공연, 무형유산과 연계 가능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계승·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무형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번 축제는 관람객에게 무형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형유산의 활성화와 저변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분께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전통문화의 도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신 국립무형유산원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사무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모습으로 관객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최고의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sincerely welcome everyone to the 2019 Inter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lm Festival held in Jeonju, the leading city for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e aim of this festival is to bring focus to film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esent a creative fusion of various programs such as archives, performances, and contests. First held in 2014, the festival has become a cultural event renowned for its originality and accessibility that invites everyone to appreci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has turned something that was once considered obscure into something easy and accessible that anyone can enjoy. The 2019 Festival will provide screenings of film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pport for documentaries and music production using videos and sounds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gital archives, special performances comb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ilms with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musical theatre, and many other programs. The need for programs that allow people to experience intangible heritage is at an all-time high, and this festival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people to enjoy and appreciate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will also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invigoration and base expan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is festival, I hope many people will be able to share the value of intangible heritage with each other and sympathize with the act of handing it down to future generations. I also hope it will help continue to promote Jeonju as the leading city for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give us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culture. Finally,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the people of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for all of their hard work in organizing this event. I hope that this festival becomes the greatest event one can attend to fulfill their desire for culture and continues to grow and develop each year. Thank you.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금기형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개최된 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뜻 깊은 무형유산을 주제로 영화 상영을 비롯 아카이브와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이번 축제를 마련해주신 국립무형유산원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미디어의 활용은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영상매체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영상매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때로는 사라질지 모를 위험에 처해 있는 무형유산 자체에 대한 기록과 인식제고 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후손에게 과거의 다양한 문화적 모습들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 축제는 이 같은 무형유산 관련 영상의 가치를 확인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축제가 지닌 역량이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올해는 작가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무형유산 관련 영상이 다수 소개됩니다. 동시에 다채로운 무형유산 주제를 다룬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축제의 주제인 '무형유산의 다시보기'와 연결 지어, '맛의 다시보기'를 테마로 해, 중앙아시아의 마유(말젖)와 관련된 음식 문화, 축제 및 의식 등을 담은 영상 세 편을 상영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대중강연도 준비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 국제전문기구인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센터가 전개해 온 영상제작 사업은 지난 2015년 중앙아시아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시작된 후, 현재 동남아시아 무형유산 영상제작이 진행되는 중이며, 내년부터는 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축제를 통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무형유산을 현재의 시점에서 생생하게 확인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그 가치를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ICHCAP Director-General

Keum, Gi Hyung

First,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opening the 2019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other stakeholders for organizing this festival that will feature a variety of events, including film screenings, archives, and performanc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ound the world. Media has been regarded and used as a popular mean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and accessibility of intangible heritage and its safeguarding. Visual media is of particular importance nowadays. While constantly evolving, visual media not only contributes to promoting documentation and awareness of endangered intangible heritage but also helps us and future generations understand various traditional cultures. The sixth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serves as a platform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films on intangible heritage. Over the years, we have witnessed the growing presence of the festival. This year's festival, in particular, will present a number of intangible heritage films that hold great artistic values and creativity. There are also various fiction features and documentaries that will be screened at the festival.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will present three films on food culture, festivals, and rituals related to Central Asian horse milk under the theme of "Rethinking the Taste," which is grounded on this year's festival slogan "Rethink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have also prepared a public lecture to help the audience better appreciate the films. ICHCAP engages in intangible heritage safeguarding activit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s a result video documentation programs have been included. They first started in 2015 for Central Asian intangible heritage, and recently, they have extended to in Southeast Asia. We plan to expand the program to South Asia and the Pacific region from next year. I hope that this festival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enjoy our long-cherished ICH and enlighten us about cultural diversity and values.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 유산을 가시화시켜 관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본 축제는 오랜 세월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각인된 무형유산의 가치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적 향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으로서의 영화와 기록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를 선별하여 상영하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의미의 아카이빙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본 축제는 축적된 무형유산 아카이브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여 활용하고 다시 축적하는 '창조적 아카이빙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프로그램에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추구해야 할 이러한 본질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고 싶었다. 물론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유무형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그동안 무형유산 또는 민속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화들을 주로 상영해온 지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영화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 향유의 장이자 창조적 아카이빙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프로그램 전반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과거의 문화유산을 동시대의 관객들이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독창적인 영화적 시도에 주목했고, 무형유산과 영화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담아내고 싶었다.

무형유산이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상력이 부족해서다. 홍보적 상상력이 아닌 영화적 상상력을 담아낸 무형유산 영화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는 처음부터 비즈니스이면서 예술이었고, 영화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무형유산을 활용하고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의 소재로서 무형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왔다. 따라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결국 어설플 대중적 시도가 아니라 영화적 상상력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다.

2019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 담아내고 싶었던 이 프로그램적인 시도가 다소 낯설지도 모르겠으나, 부디 관객 뿐 아니라 무형유산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전문가에게 특별한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영감을 주는 자그마한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The purpose of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is to create visuals of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 that audiences can see, feel and enjoy them. That is why this festival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our historical intangible heritage in a modern setting. It can be called a 'place of creative enjoyment.' Also, films that use archival footage and other records are selected and screened, which functions as another type of archiving of this culture. You could say this festival is a 'creative archiving location' that rediscovers new values through accumulated archiv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2019 program,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essence of the issues that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IIFF) must pursue. This time, we've expanded the range of the event and have made a conscious effort to make this program a meaningful one in terms of this being a creative archiving location that will give everyone an opportunity to rediscover the meaning of intangible heritage. We focused particularly on strikingly creative, cinematic films that audiences would enjoy, as we wanted to loosely conn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the films while including new sense of insight about intangible heritage.

Intangible culture is used in film in very simple ways. That's not because of a lack of understanding of film, but because of a lack of imagination. This is why it is difficult to find films that have cinematic imagination, rather than imagination for promotional purposes. Movies that can be called a composite of art and culture have always been about both art and business first. That is why since long ago, movies have not used intangible heritage for promotion, but rather made intangible heritage an interesting subject for entertainment and storytelling. This is why a sense of imagination in film, rather than lame attempts to satisfy the crowds, will be the savior of the festival.

The attempt we've made with this year's program might seem unfamiliar to you, but we hope it brings new inspiration and joy, not only to audiences, but to experts and people that have a direct or indirect connection to any form of intangible heritage.

The left side of the image features an abstract background composed of several overlapping circles in various shades of green, ranging from a deep forest green to a lighter, vibrant green. These circles create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resembling a stylized landscape or a series of ripples. The right side of the image is a solid, clean white background.

개 · 폐막식

OPENING · CLOSING CEREMONY

'무형유산 다시보기'를 주제로 아카이브의 창의적 향유에 중점을 두어 기획된 2019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의 개막작과 폐막작은 초청게스트와 일반관객,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영화를 즐기면서도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영화적 통찰을 제시한 아리랑 색선의 영화 두 편을 각각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했다.

먼저 개막작은 할머니의 꽃신을 찾으러 떠난 어린 남매가 저승세계로 빠지게 되면서 4명의 꼭두를 만나 함께 꽃신을 찾는 이야기를 담아낸 <꼭두 이야기>이다. 김태웅 감독과 방준석 음악감독의 주도로 태어난 이 영화는 특히 영화 상영과 함께 20명의 국립국악원 악단이 라이브 연주 영화음악을 들려주는 필름콘서트 버전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세상에 선보인 한국의 전통문화와 영화를 결합시킨 가장 독창적인 영화적이면서도 음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꼭두'를 통해 죽음을 성찰하는 소중한 공동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올해의 폐막작 역시 이미 관객과 전문가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한국 고전 영화와 라이브 연주와 공연, 변사를 결합한 아주 특별한 영화적 시도로 탄생된 영화 +공연이다. 폐막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영화인 1934년작 <청춘의 십자로>의 변사공연이다. 영화 자체가 등록문화재인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당대 최고의 스타

들이 출연한 로맨스 활극이지만 동시에 1930년대 경성의 문화와 생활상을 생생하게 담아낸 민속지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폐막작은 1920년대와 30년대 무성 영화 시절 활동했던 변사를 재현하고, 라이브 음악과 공연을 곁들여 과거의 영화를 완벽하게 동시대의 문화콘텐츠와 결합하여 재탄생된 버전으로 상영된다.

이처럼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다양한 예술과의 결합을 통해 탄생된 한국영화의 소중한 성과인 이 두 편의 영화 +공연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한국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면서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특별한 영화적 체험의 순간을 선물할 것이다.

개막식

9. 27.(금) 19:00
 얼썬마루 대공연장
 사회자: 배우 김동완
 개막공연: 뮤즈그레인

개막작

<꼭두 이야기> (필름 콘서트)
 연출: 김태웅
 음악: 방준석
 연주: 국립국악원 정악단&민속악단

폐막식

9. 29.(일) 17:00
 얼썬마루 대공연장
 시상식 :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식

폐막작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
 감독: 안중화
 출연: 이원용, 박연, 김연실
 변사: 조희봉

The 2019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was planned with the theme of 'Rethinking Intangible Heritage' and focusing on the creative enjoyment of archiving.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we selected two films from the Arirang Section that can be enjoyed by special guests, regular audience members, and men and women of all ages in the hopes that these films would promote new insights related to intangible heritage.

For the opening ceremony, we chose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which is about a young brother and sister who head out to find their grandma's flower-pattern shoes and run into 4 kokdus as they find themselves in the underworld. The film was created by Director Kim Tae yong and Music Director Park Jun seok, and while being screened, the music in the film will be played by a live 20 member orchestra from the National Gugak Center in a kind of joint film/concert. It's the most unique, cinematic yet musical attempt to combine film and traditional Korean culture, which has become more known globally in recent years. One could say that it represents the pure essence of Korea. The film is a moving experience that makes the viewer reflect upon the idea of death.

OPENING CEREMONY

Sep. 27.(FRI) 7:00pm
 Eolssumaru Grand Hall
 Moderator : Actor Kim Dong wan
 Opening performance : MuzGrain

OPENING FILM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Director: Kim Tae yong
 Music Diretor: Bang Jun seok
 Live Music performance: National Gugak Center

The closing ceremony film is another film that was highly praised by audiences and critics alike. Again, it's the combination of a classic Korean film and live music, along with a silent film narrator. It is a very special film/performance. The film is from 1934, it's called <Crossroads of Youth>, and it is the oldest Korean film in existence. This film is a registered cultural asset, starred the greatest actors of the era, and is a romantic action movie as well as folk film that captures the culture and daily lives of people in the 1930s. As this year's closing ceremony film, it marks the return of the silent film narrator of the 1920s and 30s, and perfectly recreates the movies of that era through live music and performance, bringing hip cultural content of the era to life.

This is no longer just a simple movie screening but a combination of various arts that we hope will heighten the interest of Korea's intangible heritage to everyone that has come to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We hope that it will be a magical movie experience that you never forget.

CLOSING CEREMONY

Sep. 29.(SUN) 5:00pm
 Eolssumaru Grand Hall
 Awards ceremony : IIFF YouTube contest

CLOSING FILM

<Crossroads of Youth>
 Director: Ahn Jong hwa
 Cast: Starring Lee Won yong, Park Yeon, Kim Yeon sil
 Narration: Jo Hui bong

아리랑

ARIRANG

작년에는 영화상영과 토크 프로그램을 결합한 시도였던 아리랑 섹션이 올해부터 새로운 콘셉트를 가진 동명의 섹션으로 전환한다. 본 섹션에는 영화를 다른 예술 분야와 결합시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특별하고 독창적인 영화적 시도를 담을 예정인데, 올해에는 김태용 감독의 2018년 작 <꼭두 이야기>의 필름 콘서트 버전과 안종화 감독의 1934년 작 <청춘의 십자로>의 번사 공연이 본 섹션에 포함되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각각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상영된다.

The 'Arirang' section was a venture from last year to combine film screening and talk session. This year, it will function as a new concept. This section will be about combining film with different artforms in a creative way to take a look back at the meaning of tangible and intangible traditional cultural assets. Kim Tae yong's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from 2018 in the film concert version and An Jong hwa's silent film <Crossroads of Youth>(1934) in traditional narrator version are part of the main section. The films of this section will be screened at the opening ceremony and closing ceremony.

꼭두 이야기 (필름 콘서트)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Korea | 2018 | 73min | Fiction | Color

9. 27.(FRI) 19:30

줄거리

할머니 몰래 꽃신을 내다 판 수민과 동민은 할머니가 쓰러지자 꽃신을 되찾으러 고물상으로 향한다. 꽃신을 찾다 고물 틈 사이에 빠지게 되는 수민과 동민. 긴 터널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망자들을 위로하는 꼭두들이 있는 곳이다. 수민과 동민은 그들과 함께 꽃신을 찾아 나선다.

김태용

김태용 감독은 1999년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로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데뷔했다. <가족의 탄생>(2006), <만추>(2011) 등에서 보여준 감성적이고 섬세한 연출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그는 다큐멘터리와 연극 연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Synopsis

After secretly selling their grandmother's flower shoes, Sumin and Dongmin go to the junk shop to get them back when their grandmother collapses. While looking for the shoes, Sumin and Dongmin accidentally fall down through the junk. They pass through a long tunnel and end up in a world of kokdu, traditional wooden figurines that comfort the dead. Sumin and Dongmin head out to find their grandmother's shoes with the Kokdu.

Kim Tae yong

Director Kim Tae yong made his debut with <Memento Mori> in 1999 and showed new potential within the Korean film industry. His talent has gained recognition through his emotional and detailed work on <Family Ties>(2006) and <Late Autumn>(2011). Currently, he is expanding his sphere of activities through his work on documentaries and stage plays.

작품소개

국립국악원과 김태용 감독의 협업으로 제작된 <꼭두 이야기>는 2017년 선보였던 공연 <꼭두>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할머니의 꽃신을 찾아 4명의 꼭두와 함께하는 어린 남매의 여정을 담고 있다. 2018 부산국제영화제 특별상영, 2019 베를린영화제 및 2019 뉴욕아시아영화제 초청작이다. <가족의 탄생>, <만추> 등을 만든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라디오 스타>, <사도> 등의 음악을 맡은 방준석 음악감독이 전통 국악을 활용해 영화의 주선율을 만들었다.

연출 김태용

음악 방준석

제작 국립국악원&기린제작사

연주 국립국악원 정악단&민속악단

국립국악원 정악단 편종·방향·노도 김병오(악장)

피리·훈 고우석

생황·피리·훈 민지홍

대금 김휘곤

단소 이종범

해금 한갑수

가야금 김형섭

거문고 이방실(총무)

아쟁 김인애

양금 정지영

정가 박진희

타악 안성일

장구 정택수

Introduction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was produc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Director Kim Taeyong. It is the film adaptation of the 2017 play <Kokdu>, which is about two siblings and four Kokdus that head out to find their grandmother's shoes. The film had a special screening at the 2018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as invited to the 2019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2019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It is directed by Kim Tae yong, who helmed previous films such as <Family Ties> and <Late Autumn> and scored by Bang Jun seok, who worked on films such as <Radio Star> and <The Throne>. Bang used traditional Korean music to create the film's score.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아쟁 김영길(예술감독)

통소·대금 김충환(총무)

피리·태평소 장수호

거문고 이선화

장구 강형수

서도소리 김민경

남도소리 이주은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

Crossroads of Youth



Korea | 1934 | 80min | Fiction | B&W

9. 29.(SUN) 17:30

줄거리

성품이 착한 영복은 봉선네 집 데릴사위로 들어가 7년 동안 일을 했으나 봉선의 부모는 봉선을 돈 많은 양철에게 시집보낸다. 이에 영복은 늙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남긴 채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영복의 여동생마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한다.

Synopsis

Kind-hearted Yeong bok lives with his girlfriend Bongseon and her family for 7 years, but Bongseon's parents marry her off to the rich, Yangcheol. Yeong bok leaves his mother and younger sister in the countryside and heads off to Seoul. But when their mother passes away, his younger sister also comes up to Seoul to look for a job.

안종화

1902년 서울 출생. <해의 비곡>(1924) 주연을 맡고, <꽃장사>(1930) 연출을 맡으며 감독으로 데뷔, 13편의 작품을 남겼다. 또한 <한국영화추천비사>(춘추각, 1962)를 집필하였다.

Ahn Jong hwa

Born in Seoul in 1902, the lead actor in <Melody of the Sun>(1924), Ahn Jong hwa made his directorial debut in <The Florist>(1930) and produced 13 films in total. He also wrote the book <Secrets of Korean Film>(Chunchugak, 1962).

작품소개

1934년 9월 21일 개봉한 <청춘의 십자로>는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안종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이원용, 신일선, 김연실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연한 로맨스 활극으로, 한국영화가 무성에서 유성으로 넘어가던 시기, 최고조에 이르렀던 무성영화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2012년 2월 문화재(등록문화재 제488호)로 등록되었다. 영화 <가족의 탄생>, <만추>를 연출한 김태용 감독은 변사, 밴드의 라이브 연주, 배우들의 실연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영화와 동시에 시연, 복합문화공연으로 변신시켰다.

Introduction

Theatrical-releasing on September 21, 1934, <Crossroads of Youth> is a film that showcases the best of silent film technology. Helmed by one of the era's leading directors Ahn Jong hwa, it features a star-studded cast headlined by Lee Won yong, Sin Il seon, and Kim Yeon sil. In February 2012, it was registered as Korean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488. Director of <Family Ties>, <Late Autumn>, Kim Tae yong combines a narrator, live band music and live acting to turn this film into a complex cultural performance.

변사 조희봉

계순 유주혜

영복 김지철

음악감독, 키보드 이진욱

아코디언 신지아

콘트라베이스 오승희

바이올린 심정은

공동연출 김태용

작사, 작곡, 편곡 박천취

각본 김태용, 오류미, 조희봉

기획 모은영

프로듀서 박관수

무대감독 윤세영

음향감독 이용석

분장실장 조상현

제작 기린제작사

재:발견

RE:DISCOVERY

본 섹션에서는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가 시작부터 꾸준히 상영해온 무형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화들이 주로 상영된다. 올해는 뛰어난 영화적 상상력을 통해 조선시대의 광대의 모습을 참신하게 담아낸 최신 개봉작 <광대들: 풍문조작단>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타미 준이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건축 철학을 고스란히 영화에 담아내는 데에 성공한 다큐멘터리 <이타미 준의 바다>, 미국 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즈 레이블인 블루노트 레코드에 대한 다큐멘터리 <블루노트 레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중 한 편이면서 등록문화재이고, 또한 1950년대 전라도 지역의 생활상과 문화가 담긴 민속지 영화이기도 한 <피아골>을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함녕전을 배경으로 고종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설치미술작가 서도호의 특별한 퍼포먼스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함녕전: 황제의 침실>을 상영한다. 건축, 음악, 미술, 민속지 등을 담아낸 이 5편의 영화는 영화를 보고 감독 또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할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This section has been arou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and is for films that have a direct connection to intangible heritage. This year, the screenings will be <Jesters: The Game Changers>, a film which depicts Joseon jesters in an original way; <The Sea of Itami Jun>, which is about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s of our time, Itami Jun; <Blue Note Records: Beyond the Notes>, a documentary about Blue Note Records, the most important jazz label in America; and <Piagol>,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ovies in Korean cinema and an ethnographic film is about the folk life of Jeolla-do in the 1950s; finally, <Ham Nyeong Jeon: The Emperor's Bedroom>, a documentary dealing with artist Seo do ho's special performance following traces of the last Korean emperor Gojong. These five movies about art, architecture, music, and folk life, respectivel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rediscovery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heritage through deep discussions with the directors after the screenings.

광대들: 풍문조작단

Jesters: The Game Changers



김주호 Kim Ju ho

Korea | 2019 | 108min | Fiction | Color

9. 28.(SAT) 17:30

줄거리

조선 팔도를 무대로 풍문을 조작하고 민심을 뒤흔드는 광대패 5인방. 어느 날 조선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로부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의 미담을 만들어내라는 명을 받고, 광대패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역사를 속이는 놀라운 이야기판을 짜기 시작한다. <광대들: 풍문조작단>은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는 세조해장대왕실록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이적현상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유쾌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Synopsis

Five jesters turn all of Korea into their personal stage by creating rumors to move the hearts of the people. A gang of jesters receives orders from the most powerful man in Joseon, Han Myeonghoe, to create and spread heroic stories about Sejo, the king that usurped the throne by murdering his nephew. The jesters rise to the challenge to create an elaborate script that will fool history. <Jesters: The Game Changers> is a box office success based on a reimagining of the phenomena recorded in the "Annals of King Sejo," which is a historical record of the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블루노트 레코드

Blue Note Records: Beyond the Notes



소피 허버 Sophie Huber

USA,UK | 2018 | 86min | Documentary | Color

9. 29.(SUN) 10:30 +GV

줄거리

마일즈 데이비스에서 노라 존스까지 80년에 걸쳐 재즈 음악사를 이끈 혁신적인 레이블 '블루노트 레코드'의 모든 것을 담은 작품. 독일 출신 백인 청년들이 설립한 작은 음반사가 음악사에 주요한 역사가 되기까지는 아티스트의 표현의 자유, 완성도 있는 음악을 우선시하는 그들의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다. 현재에도 시대에 맞춰 재즈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블루노트 레코드'의 모습을 통해 과거의 문화정신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ynopsis

A film about 'Blue Note Records' an innovative record label that led jazz music history for 80 years from Miles Davis to Norah Jones. A small record label established by white youths from Germany grew to become a core part of music history by putting their artists' freedom of expression and high quality music above everything else. To this day, they continue their attempts to make a variety of changes to jazz music for the current generation, and this film will inspire you to keep the cultural spirit of the past alive.

이타미 준의 바다

The Sea of Itami Jun



정다운 Jung Da woon

Korea | 2019 | 112min | Documentary | Color

9. 29.(SUN) 13:30 +GV

줄거리

자연과 시간의 결이 깃든 건축을 선보였던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유동룡). 국내에도 잘 알려진 제주도의 수풍석 미술관, 포도호텔, 방주교회 등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장소의 고유한 풍토, 지역성, 그리고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건축 철학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건축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온 감독이 표현하는 뛰어난 영상미와 배우 유지태의 진정성 있는 내레이션, 음악가 양방언의 아름다운 음악이 영화의 감동을 더하고 있다.

Synopsis

The Korean-Japanese architect Itami Jun (Yu Dongr yeong) whose architecture encompassed nature and time. A film that depicts Itami Jun's architectural philosophy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people who use these buildings and their time. The na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location are reflected in well-known works such as the Biotopia Museum in Jeju, the Podo Hotel, and Bangju Church. Using architecture as the subject matter of his film, the director combines stunning visuals with actor Yoo Jitae's narration and musician Yang Bang eon's beautiful music to create a moving documentary.

피아골

Piagol



이강천 Lee Kang cheon

Korea | 1955 | 106min | Fiction | B&W

9. 28.(SAT) 13:00 +GV

줄거리

1954년 전북 경찰국 공보주임인 김종환이 지리산 공비 토벌 때 입수한 빨치산의 기록과 수기를 바탕으로 한 <피아골>은 휴전 후 지리산에 남아있는 빨치산 대장 아가리를 중심으로 대원간의 갈등을 세밀하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있다. 1950년대 한국적 리얼리즘과 색다른 반공 영화의 장을 연 한국전쟁 전후 최고의 문제작이자 문화재 등재 필름이기도 하다(등록문화재 제346호). 이번 영상 축제에서는 UHD로 복원한 버전으로 상영하며, 한국영상 자료원 영상복원팀을 초청해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과 복원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Synopsis

Based on the North Korean partisan records and memoirs that Jeollabuk-do Police Bureau Communications Director Kim Jong hwan obtained during the 1954 suppression of the Jirisan guerrillas, <Piagol> is about the leader of the partisans who is left on Jirisan Mountain after the ceasefire and depicts the struggles of the soldiers in a humanistic way. The film portrayed the realism of Korea in the 1950s and ushered in a new wave of anti-communist films in Korea. Despite being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works after the Korean War, it has been recognized as a cultural property. (Paju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No. 346)It will be screened in UHD, and the film restoration team from the Korean Film Archive will be invited to shed light on how it was restored and the importance of film restoration.

함녕전: 황제의 침실

Ham Nyeong Jeon: The Emperor's Bedroom



석혜인 Seok Hye in

Korea | 2019 | 71min | Documentary | Color

9. 28.(SAT) 19:00

줄거리

설치미술작가 서도호는 고종 황제가 덕수궁 함녕전에서 두툽한 요인 '보료' 3채를 깔고 잤다는 궁녀의 증언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고종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작가 서도호는 배접장, 고건축사, 서화류 보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고종의 침실을 복원한다.

Synopsis

Installation artist Seo Do ho began to trace Emperor Gojong's life after hearing that the emperor used three thick mattresses called "boryo" in his sleeping chamber, named "Ham nyeong jeon" inside Deok su gung Palace. Seo Do ho acquires help from various experts in framing, architecture, calligraphy, preservation, and more to recreate the sleeping chambers of Emperor Gojong.

포커스
FOCUS

포커스

임권택 감독 특별전

임권택 감독 특별전

Director IM Kwon taek

올해 포커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임권택 감독이다. 가장 한국적인 영화를 연출했던 감독으로 평가받는 임권택 감독의 100편이 넘는 연출작 중 민속지적 관점으로 분류한 영화들을 통해 그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살펴보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한다. 임권택 감독과 그의 영화 세계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정성일 평론가가 선정한 3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축제> 상영 후에는 임권택 감독과 정성일 평론가의 대담 세션이 진행된다.

The first star of this year's FOCUS program is the Korean film master Im Kwon taek. A critically acclaimed director, he's created over 100 films. This will be a special opportunity to take a look back on the works that focus on folk customs and perspectives. Im Kwon taek and the greatest film expert Jung Sung il have chosen three films, and after the screening of <Festival>, Im Kwon taek and Jung Sung il will be available for in-depth discussions.

FOCUS

Director IM Kwon taek

씨받이

The Surrogate Womb



임권택 Im Kwon taek

Korea | 1986 | 95min | Fiction | Color

9. 28.(SAT) 18:00

줄거리

신씨가문의 종손 상규에게 후세가 없자 집안 어른들은 옥녀를 씨받이로 들인다.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유린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임신, 출산 등 조선시대의 풍속도와 함께 펼쳐진다.

Synopsis

Sang gyu, the eldest grandson of the noble Shin family doesn't have any offspring, so the elders of the family give him Oknyeo as a surrogate mother for his child. The story of women violated by a patriarchal society is told through pregnancy, birth, and the cultural landscape of the Joseon Dynasty.

리뷰

<씨받이>는 임권택의 여든네 번째 영화이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른 다음에도 임권택은 조선 시대로 계속 되돌아 들어가고 그런 다음 나오기를 반복했다. 우리들에게 조선시대는 끝나긴 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다. 조선은 우리 곁에 머물면서, 때로는 우리 위에서 내리누르고, 그리고 종종 우리 아래를 떠받치고 있다.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숨겨놓은 것일까. 마치 우리를 때로는 잡아끌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마치 그때가 지금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서 태연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만 같다. 우리 안의 그들. 근대 안의 조선시대. 한국영화는 계속해서 조선시대를 건드렸다. 누군가는 조선시대에서 민족을 찾았고, 누군가는 영웅을 찾았으며, 누군가는 민중을 찾았고, 누군가는 왕을 찾았고, 누군가는 색(色)을 찾았으며, 누군가는 전쟁을 찾았으며 (...) 그리고, 임권택은 유교를 짚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 종갓집 종손 신상규와 그 부인은 슬하에 자식이 없자 친족들이 모여 논의 끝에 씨받이를 들이기로 한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씨받이 마을에서 데려온 나이 어린 옥녀를 아흔아홉 칸 고택의 별채에 숨겨놓고 길일에 그 둘을 합궁시킨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던 옥녀는 점점 신상규에게 마음이 열리고, 양반은 씨받이에게 끌린다. 하지만 임신이 되자 둘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출산하자마자 옥녀는 쫓겨나듯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밤중에 떠난다. 일 년 뒤에 아이가 보고 싶어 찾아온 옥녀는 이 집 근처에서 목을 맨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익숙할 것이다. 이 서사는 한국영화에서 수없이 만들어진 양반과 '쌍것' 사이의 넘나들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임권택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씨받이>는 한쪽에서 하나의 의식처럼 합궁이 어떤 감정도 지니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다른 한쪽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지배하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떠받드는 제사라는 의례절차가 지극정성을 다해 진행된다. 이 영화의 무서운 장면. 서로에게 마음이 이끌린 양반 신상규와 씨받이 옥녀는 합궁하는 길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안 정원 구석에서 몰래 만난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밤중. 그때 큰 마루에서는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문중 제례를 논하면서 죽은 조상을 모시는 도리에 대해서 조용하지만 엄격하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때 임권택은 어두운 정원에서 그 둘을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나의 세계로 담아내어 병풍처럼 펼쳐 보인다. 한쪽에서는 조선시대에도 법과 도리 바깥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은밀하게 보여주면서 다른 한쪽

Review

<The Surrogate Womb> is Im Kwon taek's 84th movie. Until this point, and even after this point, Im Kwon taek continued to return to the Joseon Dynasty again and again. The Joseon Dynasty may be over, but it hasn't disappeared. Joseon has always been by our side, at times pushed down above us, and at other times underneath supporting us. At times it pulled us hard, and at moments, as if it was the present, it was as if it was calmly repeated before us. Those within us. The Joseon Dynasty in you. Korean movies continue to touch upon the Joseon Dynasty. Some look for people in the Joseon Dynasty, some look for heroes, some look for the public, some look for kings, some look for light, some look for war, and Im Kwon taek filmed Confucianism. The eldest grandson of a noble Joseon clan, Shin Sang gyu and his wife Seul ha couldn't have children, and so his relatives decided to get them a surrogate. They bring Oknyeo from a surrogate village, away from other people's eyes and hide her in the annex of the traditional mansion with 99 rooms. On the day that brings luck, they make him sleep with her. Oknyeo doesn't have any feelings for Shin Sang gyu at first, but she begins to open up to him, and the noble falls in love with the surrogate. But after she becomes pregnant, they each return to their places, and as soon as she gives birth, Oknyeo is virtually kicked out of the house. She leav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without even seeing her child. Oknyeo returns a year later because she misses her child and hangs herself near the house.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this story. It's a very common Korean movie theme about the forbidden love between a noble and servant. But Im Kwon taek wasn't interested in that love story. <The Surrogate Womb> depicts the ritual of sex without any feelings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hand, depicts how the dead control the living as they must respect the dead through memorial rites. A scary scene in this movie. Noble Shin Sang-gyu and surrogate Oknyeo have feelings for each other and can't wait for the appointed day to have sex and instead meet in secret in the corner of the garden. During the night filled with shadows. In the large room, the elders of the family are gathered for the ancestral rites to honor their dead

에서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지가 펼쳐진다. 두 세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세계, 서로 공존하는 삼강오륜의 질서, 여기에는 선도 악도 없다. 그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켜진다. 오직 법과 명령만이 거기 있을 뿐이다.

임권택은 여기서 단 한 순간도 어떤 감상이나 동정심에 물들지 않는다. 그저 그걸 지켜볼 뿐이다. 그러면서 그 둘이 사실은 하나이며, 그렇게 죽음과 삶이 서로 연결된 한국인의 내세관을 떠받치는 유교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바라본다. 양반들의 일상생활, 그 생활의 디테일들, 그 세계가 법칙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어떤 법칙? 유교의 법칙, 가문의 도리, 자식의 의무, 아내의 법, 넘을 수 없는 양반과 '쌍것'의 선, 마치 무덤과도 같은 고색창연하고 우아한 이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의례에는 어떤 양보도 없고, 어떤 타협도 없다. 한 번 더 말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행한다. 의무와 예속의 세계, 잔인함은 기쁨이 있으며, 무자비한 과정은 우아하고, 도리의 위계질서는 엄격하게 지켜진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동방예의지국,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씨받이>는 몸서리칠 만큼 잔인하고 아름답게 찍힌 '한국' 영화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한국은 몸서리칠 만큼 잔인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그걸 <씨받이>에서 보게 될 것이다.

정성일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ancestors. They do this quietly yet in a very strict and subdued manner to resolutely continue the story. At the same time, Im Kwon taek uses a crane to depict their world in the garden like a folding screen. On one side, it shows how in the Joseon Dynasty, people lived outside the laws and their duty. And on the other side, it shows how the dead control the living.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orlds. It is one world. It's the coexistence of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of Confucianism. There is no good or evil here. It is carried out because it has to be. And it's not just law and order that exists there.

Not for a single moment does Im Kwon taek paint the scenes with sentiment or empathy. He just observes. The truth of the two characters is one, and we get to see how the Korean view of the afterlife in Confucianism is practiced in daily life. The daily life of the nobles. The details of those lives. That world begins to operate on law. What kind of law? The law of Confucianism. The duty of the family. The obligation of the child, the law of the wife. The line between the noble and slave. Inside this antique and elegant old house, which is like a grave, the rituals do not yield nor show any compromise. There's no choice but to say it again. It's done because it has to be done. The world of obligation and subjugation. Cruelty and grace, it is elegant in its brutality, and the hierarchy of duty is strictly kept. But where does the person stand? Korea is a country of courtesy.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The Surrogate Womb> is so cruel that it'll make you shudder, and it is a beautifully filmed Korean drama. Let me repeat myself. Korea is a nation that is so cruel and beautiful, it'll make you shudder. And you'll witness that in <The Surrogate Womb>.

Jung Sung il film critic, director

축제 Festival



임권택 Im Kwon taek

Korea | 1996 | 107min | Fiction | Color

9. 28.(SAT) 11:00 +GV

줄거리

할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다시 만난 가족은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이제껏 묻어 뒀던 서로에 대한 갈등을 드러낸다. 지금은 간소한 전통 장례문화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Synopsis

A family is reunited by their grandmother's funeral but old unsettled conflicts resurface throughout the three days of mourning. A film that allows us to reconnect with traditional funeral culture that has been simplified in the modern era.

리뷰

<축제>는 임권택의 아흔네 번째 영화이다. 아마 아무 설명 없이 영화를 보았다면 당황했을 지도 모른다. 이 영화는 여든일곱 살 치매 든 모친의 삼일장 장례식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그런데 제목이 '축제'이다. 임권택은 단지 이 제목을 아이러니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우리에게 질문한다. 당신에게 장례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그런데 떠나간 고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간 것입니까.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인사. 서울에 사는 소설가 준섭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관한 소설을 쓰다가 부고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 받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다. 여기가 영화의 첫 장면이다. 약간의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축제>의 원안을 쓴 사람은 소설가 이청준이다. 이 이야기가 이청준 작가의 집안 자서전은 아니지만, 그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마음의 제사 치레인 것은 사실이다. 이때 임권택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러진 장례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 <축제>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장례식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평행으로 이준섭 작가가 쓴 동화책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 동화책이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이다. 어린 딸 은지는 할머니가 나이 들어 돌아가실까 걱정이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온 모든 지혜와 경험을 모두 나누어주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며 그렇게 은지와 세상에 남는다는 걸 가르쳐 준다. 이청준 작가는 이 이야기를 임권택이 영화를 찍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썼고, 그걸 다시 찍어서 영화의 일부로 만들었다.

<축제>는 한편으로는 호남의 전통 장례식의 절차를 그 안에서 살아왔고 그걸 지켜보았던 그 자식들만이 찍어 낼 수 있는 디테일의 세계 안에서 하나씩 그 어느 하나 놓치는 법 없이 차례로 따라가면서 진행해간다. 예의를 갖추었지만, 문상객들은 때로 질편하고 또 한 편으로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시답잖은 농을 걸면서 그렇게 하나씩 슬픔을 건넌다. 장례도 일상의 연장이라 서로 제 삶이 바쁘고 고단하여 얼굴도 보지 않고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큰 소리가 나오지 않을 리 없다. 임권택은 거의 카오스와도 같은 이 절차 안에서도 대가다운 숨씨로 큰 맥을 놓치지 않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어느 인물 하나 소소히 다루는 법 없이 그들을 자신의 한 가족처럼

Review

<Festival> is Im Kwon taek's 94th film. You might be shocked if you watched it without any prior knowledge. The entire movie is about the three day funeral of a 97 year old woman who suffered from dementia. But the film's title is "Festival." Im Kwon taek didn't choose this title to be ironic. But the question lingers. What does a funeral mean to you? And one other thing. What do the deceased leave behind for us?

The last farewell with the deceased. Novelist Jun seop lives in Seoul and is writing a novel about his grandmother who suffers from dementia when he gets a call about her passing and goes down to his hometown with his family. This is the first scene of the movie. There needs to be a little bit of an explanation. The original story of <Festival> was written by novelist Yi Chong-jun. This isn't Yi Chong-jun's autobiography, but it's true that he held a memorial service in memory of his mother. Im Kwon taek would have been moved to have known that this story took place close to his hometown. <Festival> has a complex structure. As the story of the funeral unfolds, the children's story written by character Lee Jun seop unfolds at the same time. It's called 'The Grandma Flower Searches for the Spring.' The daughter, Eunji, is worried that her grandmother will pass away from old age. But by sharing the experiences and wisdom gained from her life with her granddaughter, the grandmother teaches Eunji that she'll always be with her. Yi Chong jun wrote this story as he watched Im Kwon taek filming on set, and that was then added to make up part of the movie.

<Festival> shows us the intricate world of the traditional funeral process of Jeolla Province without skipping any of the details. The mourners are at times relaxed and even joke around with the family to comfort them, as each person deals with the grief in their own way. The funeral is an extension of daily life. Each person's life has its own hardships, and so when a family that never spent time together gets together, arguments and fights ensue. Im Kwon taek makes sure to capture everything

살려낸다. 그 인물들이 육자배기 같은 욕설을 늘어놓을 때도 정을 잃는 법이 없고, 그러면서도 무거운 절을 올리면서 어머니와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의 비애를 잊지 않는 것은 이청준의 깊은 맛이 우러나는 녹차의 향과도 같은 대사들 덕분이다. <축제>는 위대한 두 예술가의 기품 있는 협연이자, 서로 존경심을 품고 인사를 나누는 세션이며, 그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이 된 어머니에게 바치는 사모곡의 노래이다. 하지만 임권택과 이청준은 여기서 더 밀고 나아간다. 장례식과 평행으로 진행되는 동화책의 이야기 장면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임권택의 영화에서 가장 맑고 영롱한 씬들이다. 아니, 차라리 보고 있는 동안 정화되고 있는 기분이 든다고까지 말하고 싶을 정도이다. 영화에서 일곱 번 나누어 진행되는 동화책의 장면들에서 임권택은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는다. 그저 어린 은지에게 자기의 지혜, 살아온 경험, 그 모든 시간의 부피와 두께, 아니 삶 전체를 남겨두고 떠나가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분이었는지를 가까스로 자신의 눈물을 참아가면서 마치 하늘을 쳐다보듯이 찍어나간다. 아마도 그래서 그 장면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마치 맑고 푸른 하늘의 색채처럼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집안의 미운 오리였고, 그래서 일찌감치 집을 떠난 용순은 장례식에 나타나 빈정거리다가 준섭의 동화책을 모두 읽고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 그 책이 자기를 위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장례식은 끝난다. 할머니는 이제 떠났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가족사진을 찍을 때 구석에 부끄러워하며 어색하게 서 있는 용순을 부를 때 우리는 신바람 나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을 것이다. 할머니가 남겨준 것, 그리고 우리가 왜 장례식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떠나간 자의 마음. 장례는 얼마나 기쁘고 지혜로운 것인가.

정성일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in the chaos and not miss any of the characters, as if they're his real family. Even when they swear and curse at each other, their words aren't filled with hatred. And when they bow deeply to say farewell their mother for the last time, the lines written by Yi Chong jun ensure that their grief has depth. <Festival> is a collaboration between two artists that displays their respect for one another and is a song that each of them offers to the deceased. But Im Kwon taek and Yi Chong jun take this even further. The scenes where the funeral parallels the children's story are the most brilliant scenes in all of Im Kwon taek's films. It's as if your eyes are being purified as you watch. The children's story scenes appear seven times throughout the film, and they're inserted without any special techniques. Eunji holds her back tears and comes to appreciate her grandmother as she realizes it's just a way for the grandmother to leave behind not only her wisdom and life experiences but her whole life to her granddaughter. This is why those scenes will last in your memory like a clear blue sky. Yongsun was the ugly duckling of the house, and that's why she left home early. Only at the end of the book does she realize that it was written for her. The funeral is over. The grandmother is now gone. The family who remain all gather together to take a family photo. When they call over Yongsun who sits shyly in the corner, we realize something as we watch her run with a breath of fresh air. We realize what the grandmother left behind and why we conduct the funeral. The heart of the departed. A funeral is a happy occurrence that fills one with wisdom.

Jung Sung il film critic, director

춘향년

Chunhyang



임권택 Im Kwon taek

Korea | 2000 | 136min | Fiction | Color

9. 29.(SUN) 13:00

줄거리

한국의 고전소설 <춘향전>을 원작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영화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조상현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공연이 더해져 원작의 감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Synopsis

A film based on the classic Korean novel <Chunhyangjeon> and its main characters Seong Chunhyang and Lee Mongryong. The film heightens the original work through the performance of the "Chunhyangga" pansori and the love story between the two main characters.

포커스

임권택 감독 특별전

리뷰

<춘향뎐>은 임권택의 아흔여덟 번째 영화이다. 그리고 좀 더 소리 높여 말하고 싶어진다. <춘향뎐>은 임권택 영화의 결론이자 그의 예술의 정수이다. 잘 알려진 대로 '춘향전'은 조선 영조조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지만 그 저자를 알 수 없는 구비문학의 걸작이다. 처음에는 판소리로 시작하여 소설로 옮겨졌으며, 그 과정에서 120여 종에 달하는 원형 이판본(異板本)이 세대를 옮겨가는 과정에 나타나면서 '춘향전 군(群)'이라고 부를만한 이야기가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원각사 공연 이후 창극(唱劇)이 되었고, 그런 다음 희곡을 거쳐 다시 영화화되기 시작했다. 부끄럽게도 첫 번째 <춘향전> 영화는 일제식민지 강점 하에 1923년 하야가와 고슈의 무성영화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춘향전' 이야기는 쉬지 않고 영화로 다시 제작되었다. 가장 유명한 '춘향전'은 신상옥이 최은희를 춘향으로 한 <성춘향>과 홍성기가 김지미를 춘향으로 한 <춘향전>이 1961년 같은 해 극장에서 흥행 대결을 벌였을 때였다. 그런 다음 다시 '춘향전'은 텔레비전 드라마로 옮겨가 안방에서 다시 공중파를 타면서 또 만들어졌다. 임권택의 <춘향뎐>은 영화로 만들어진 12번째 작품이다.

하지만 임권택은 여기서 이미 우리가 본 '춘향전'을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 아마도 그 시작은 <서편제>였을 것이다. 여기서 판소리꾼 이야기를 짠 임권택은 그때 처음으로 판소리 '춘향전'의 완판본을 들어보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때 받은 충격과 감동을 여러 자리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임권택은 아마도 그걸 듣고 또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떠나온 고향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 남도의 소리. 어린 시절 그 후로는 그만 잊을 줄 알았던 기억 저편의 그 소리.

임권택은 거의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영화가 판소리를 찍어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것은 단지 이미지와 음악의 문제가 아니다. 두 예술은 서로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했으며, 서로 다른 문화 위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왔으며, 그러면서 각자의 문법을 가졌고, 그리고 서로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도식적으로 말하겠다. 영화는 서양의 과학 기술의 과정 속에서 발명되었으며, 근대의 이성으로 쇼트의 체계와 서사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판소리는 한민족의 흥과 비애의 정감을 담아 소리의 고저장단이 되었고, 그걸 옮기면서 소리의 기량을 발전시켰으며, 그 안에서 위대한 명창들이 다시 다듬고 또 보존하여 전승하였다. 그것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았을 때 자칫하면 영화가 부서지거나 판소리가 그저 이야기 주변을 걸돌면서 웅성거릴지도 모

Review

<Chunhyang> is Im Kwon taek's 98th film. And we want to announce that a little louder. <Chunhyang> is Im Kwon taek's ultimate movie and the essence of his art. As commonly known, 'Chunhyang' is presumed to have been written during King Yeongjo or King Jeongjo's reign. It is a masterpiece of oral literature whose author is unknown. It began as a pansori song and was later turned into a novel. During the process, 120 original versions were created, and it became the story that is known as 'Chunhyangjeon.' In modern times, after the Won-gak-sa performance, it became a Korean opera. Then, it started to be produced as films. Embarrassingly, the first <The Story of Chunhyang (Chunhyangjeon)> movie was a silent film made by Koshu Hayakawa in 1923. However, it continued to be made into movies. The most famous versions of 'Chunhyangjeon' are Shin Sang ok's version where Choi Eunhee played Chunhyang in <Sung Chunhyang> and Hong Seong gi's version where Kim Ji mi played Chunhyang <Chunhyangjeon>. Both films competed against each other for ticket sales in 1961. After that, 'Chunhyangjeon' was made into a drama and was broadcast on television. Im Kwon taek's <Chunhyang> is the 12th movie version of the story.

However, Im Kwon taek had no plans to repeat the 'Chunhyangjeon' we'd seen. It probably began with <Seopyeongje>. After filming the pansori singer's story, he confessed that the first pansori he heard was 'Chunhyangjeon.' And he discussed on many occasions the shock and emotion that he felt from it. Im Kwon taek probably listened to it over and over again. And that's when he realized...The sound that called him back to his hometown. The sound of Namdo(Jeolla Province). The sound from far away that he thought he'd forgotten after his childhood.

Im Kwon taek made a virtually impossible goal. Can't a movie film pansori? It wasn't a simple issue between imagery and music. The two art forms began in completely different places, walked two different paths for different cultures, developed their own languages, and never once shared with each other. Let's explain it schematically. Movies were invented through the

FOCUS

Director IM Kwon taek

른다. 임권택은 여기서 그 자신이 쌓은 거의 모든 기량을 다한다.

<춘향뎐>에서 사용한 판소리 판본은 조상현 명창이 1975년에 녹음한 소리이다. 여기서 구태여 '춘향전'의 줄거리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있는 이야기. 부모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알고 있는 이야기. <춘향뎐>은 형식의 영화이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여기서 영화의 형식과 판소리의 형식은 서로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한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첫날 밤을 보낼 때 영화는 어떻게 사랑가를 꺼안을 것인가. 이몽룡이 과거급제를 보러 떠날 때 나귀에 매달리는 성춘향을 바라보면서 영화가 '이별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옥중가'는 또 어떤가. 그리고 '십장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다음 마지막에 자진모리장단에 맞춘 '어사 출두'에 이르면 영화와 판소리는 함께 절정에 이른다. 임권택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저 겸손하게 나는 소리 위에 영화를 얹어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이렇게 위험천만한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용기를 내서 말해보고 싶다. 한국영화는 결국 <춘향뎐>이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춘향전'을 찍었기 때문이다.

정성일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Western scientific process, and in modern times they create the short system and narration system through modern rationality. Pansori contains the joy and pain of a nation and becomes the height and length of sound. As it was moved, the caliber of sound was developed, and master singers continued to perfect it, preserve it and pass it down. When gathered in one place, if not careful, the movie could potentially fall apart or the pansori could end up as just noise within the story. Im Kwon taek makes use of virtually all of the skills he accumulated.

The pansori in <Chunhyang> was recorded by Jo Sanghyeon in 1975. The plot summary of 'Chunhyangjeon' needs no introduction. It's a story that every Korean knows. A story that your parents know. A story that the grandparents of your parents know. <Chunhyang> is a form movie. Please don't misunderstand what is being said. One must ask whether film and pansori can come together. When Lee Mongryong and Sung Chunhyang spend their first night together, how does the movie embrace the 'Sarangga'? When Lee Mongryong leaves to take the state exam and Chunhyang is hanging off her donkey looking on, can the movie handle the 'Yibyeolga'? What about the 'Okjunga'? What about the 'Simjangga'? Finally, the 'Eosa chuldu' is played to the sacred Korean beat and the film and pansori reach the climax together. How did Im Kwon taek manage to make such a film? He humbly replied that all he did was add a film to sound. But who could ever go on such an adventure filled with danger? I want to go out on a limb and say this. Korean film, in the end, is <Chunhyang>. That's because this film shot 'Chunhyangjeon.'

Jung Sung il film critic, director

포커스

임권택 감독 특별전



영화감독 임권택

한국 근대사로 들어가는 영화적 입구, 임권택

영화평론가, 영화감독

정성일

임권택을 말하는 것은 한국 근대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지난 이십 세기, 그리고 우리들의 세기. 임권택은 두 개의 세기를 건너온 생존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 변방의 작은 한반도는 지난 세기에 벌어진 모든 사건을 고스란히 통과해왔다. 근대의 테크놀로지를 먼저 장악한 제국주의의 나라들은 이 작은 한반도에서 무너져가는 왕조를 짓밟으면서 무자비한 전쟁을 수행했다. 그런 다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임권택은 1934년 호남 저 아래 장성에서 태어났다. 한반도에서 언제 태어났느냐는 질문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개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도 없는 역사. 한반도의 결정에 무관심한 세계의 역사. 임권택은 호남의 판소리와 서예와 풍미 깊은 음식들을 음미할 수 있는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해방은 그가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해방 직후 좌우 대립의 세월 한복판에서 일본에 유학 갔다 돌아온 친척들은 고향에 공산주의 사상을 알려주었다. 그의

부모님은 지리산에 따라 올라갔고, 빨치산이 되었지만 몸이 아파서 내려왔다. '빨갱이 집안'으로 몰린 집은 더 이상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나이 열여덟에 임권택은 푼돈 몇 푼 들고 집을 떠났다.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무작정 집을 떠난 어린 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은 피난민들이 넘쳐나는 부산밖에 없었다. 거기서 굶지 않기 위해 지계를 들었다. 매일 밤 어쩔죽지가 너무 아파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돈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어린 나이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임권택은 수전증을 평생 안고 살았다. 휴전을 하자 알고 지내던 장사꾼들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올라왔다. 그들이 무슨 생각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임권택은 그렇게 영화에 도착했다. 이승만 정권이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작은 위로라도 얻으려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영화 진흥 정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먼 훗날의 이야기이다.

FOCUS

Director IM Kwon taek

임권택은 고통스럽게 증언했다. "영화 현장에 있으면 밥도 주고 잠도 잘 데가 있고 돈도 주잖아요 나는 그때 그러면 된 거예요 나보고 감독을 하라고 했을 때 무서웠어요 영화가 흥행이 안 되면 다시 굶어야 하잖아요" 1962년의 일이다. 임권택은 스물아홉 살에 첫 번째 영화 <두만강이 잘 있거라>를 찍었다. 다행히도 이 영화는 성공하였다.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임권택이 첫 영화를 찍던 해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다음 그 해 말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긴 독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제5공화국은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반공(反共)을 내세웠고 연좌제를 비롯한 수많은 감시의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박정희는 정적(政敵)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협박하고, 침묵시켰다. 남한에서 활동하는 지하의 간첩에 관한 이야기가 사회를 떠돌았고, 북한에서 훈련된 무장공비들이 여기저기 출몰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임권택은 창백해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숨죽이고 살아가야만 했다. 1960년대는 한국영화의 위대한 시대였다. 신상옥, 김기영, 유현목, 김수용, 이만희로 이어지는 이름들, 찬란한 스타들의 명단. 임권택은 그들 사이에서 그저 묵묵히 영화를 찍어나갔다.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간신히 개봉하였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름. 임권택은 그저 잠시 총무로써 머물다가 떠날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활동했다.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해가 지면 하숙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다. 한국영화는 기울기 시작했다. 점점 더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유신헌법을 통과시킨 다음 긴급조치를 발동했다. 무시무시한 검열이 시작되었다. 자본은 정부와 손을 잡았고, 통계를 정치적 선전으로 믿은 경제개발계획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동안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속에 손목이 잘리고 폐를 망쳤다. 1971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노동자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친 다음 분신자살하였다. 그 때까지 임권택은 고작 십 년 동안 오십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때, 문득 영화감독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돌아보았다. 직업의 윤리가 내리는 명령. 그래도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처음 가졌다. 자신이 제작하고 연출한 <잡초>가 그 영화이다. 하지만 대중들은 외면했고, 비평가들은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이 영화는 이제 그 프린트도 사라졌다. 임권택은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 한국영화는 늘 속으로 들어갔다. 오직 정부에 충성하는 영화, 반공영화와 새마을영화만이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다. 관객들은 극장을

떠나가고 있었다. 임권택은 외화 수입 쿼터를 얻어내기 위해 버리듯이 찍는 한국영화를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찍어나갔다. 그 순종적인 태도. 그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임권택이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역설적으로 그는 시장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매번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질문을 실행하였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통과해나갔다. 임권택은 말 그대로 시행착오의 대가가 되어갔다. 아마도 <왕십리>는 그 신호탄이 되었을 것이다. 1975년의 일이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그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관련자 전원이 사형당한 그해. 임권택은 조심스럽지만 자기 안에서의 부단한 도약을 거듭하고 있었다.

<깃발 없는 기사>와 <짜꼬>를 찍었을 때 임권택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대결할 준비가 되었다. 나의 아버지 세대. 그들이 보낸 청춘의 시간. 해방 직후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기자 허윤은 친구들조차 각자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의절하는 것을 바라본다. 화색지대에 놓여있던 허윤은 긴 고민과 회의 끝에 자기의 깃발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영화는 단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다. 해방 직후의 일상생활의 디테일은 이미 임권택이 대가의 경지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포집에 모여 앉아 막걸릿잔을 기울일 때 전력이 부족하여 깜빡 거리는 전등은 종종 대화를 중단시킨다. 문득 끼어드는 암흑. 영화 전체를 내리누르는 피로. 그때 임권택의 카메라는 가깝지도 않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자리에서 일정한 거리, 그저 임권택의 거리라고밖에는 달리 설명하기 힘든 그 만큼의 거리에서 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 그 인물들이 만난 사건을 바라본다. <짜꼬>에서 임권택은 더 깊이 밀고 들어갔다. 이제는 돌볼 이도 없는 노인들을 모아 관리하는 갱생원에 한 노인이 들어온다. 거기가 시작이다. 그리고 거기서 코가 찢어진 노인을 보더니 갑자기 달려들며 먹살을 붙잡고 고향에 가자고 소리친다. 송기열. 빨치산 토벌에 나선 경찰이었던 그는 특진이 걸려있던 찢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만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놓친다. 백공산. 별명이 찢코인 이 남자는 빨치산이었던 경력을 숨기고 평생을 도망 다닌다. 송기열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한다고 찢코를 평생을 쫓아다닌다. 영화는 교차 편집을 통해 송기열과 찢코 사이를 오가면서 한 편으로는 갱생원에서 그들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선도 악도 없다. 그저 둘로 나뉘어 쫓고 쫓겼던 두 남자의 보잘것없는 삶이 그렇게 탕진되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시종일관 어느 한순

간도 남김없이 비애의 감정으로 가득 찬 시간들. 임권택은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는다. 이 영화는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다. 여기서 임권택은 덧없는 삶을 보내 버린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필사적이 된다. 정치의 놀음에 휘둘린 것은 알겠다. 그런데 그때 그 놀음 속에서 살아야 했던 심정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썩코>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부터 가야 할 임권택의 영화를 갑자기 펼친다. 송기열은 썩코를 잡아 이끌고 기차를 태워 고향으로 향한다. 하지만 썩코는 송기열에 기대서 고향에 가 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둔다. 고향으로 가는 길. 그런데 고향은 다가갈수록 점점 멀어진다. 마치 가볼 수 없는 곳이 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더 멀어진다. <썩코>는 임권택이 결국에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영화이다.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멀어질 것이다.

하지만 임권택은 일직선을 그으면서 자기의 결론을 향해 밀고 나아가지 않았다. 임권택은 한 걸음을 나아가면 혹은 너무나 빠른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면서 두 걸음을 뒤로 물러난다. 언제나 그러했다. 임권택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밀고 나아가고 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순간은 <만다라>를 만들었을 때 찾아왔다. 두 명의 승려. 법운은 자기의 번뇌를 끊고 열반의 깨달음을 얻기를 갈망한다. 그래서 한겨울 만행을 하는 중이다. 버스에서 우연히 또 한 명의 승려를 만난다. 얼핏 보면 파계승처럼 보이지만 지산은 세상 사람들, 그것도 저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생들 속에서 병 속의 새를 꺼내야 한다고 믿는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두 개의 길. 법운은 처음에는 지산을 경멸하지만, 점점 더 그와 가까이 지내면서 연민으로 바뀌고 그가 가는 길이 자신과 다르지만 지산은 또한 그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자기의 길을 용맹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존경하게 된다. <만다라>는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난다. 눈 덮인 산사에서 서울역 앞 유곽에 이르고, 추운 겨울 바닷가에서 이름 모를 시골길 봄날의 나무들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언덕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만행 길에서 두 사람은 번뇌와 돈오(頓悟)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한다. 그게 영화의 전부이다. 풍경들. 그때 이 영화를 촬영한 정일성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게 찍었다. 그는 눈이 내리면 녹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서 자기의 자태를 드러낼 것이다.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았던가. 임권택은 <만다라>가 기다림의 과정에 관한 영화라는 걸 온전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임권택은 다시 되돌아왔다. 고향으로 가는 길. 그런데 거기서 아직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길소뜸>은 그가 만든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차갑고 매정한 영화이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KBS 한국방송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생방송 중계하였다. 453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졌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미처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은 여의도 광장에서 자신의 이름과 가족과 헤어진 장소를 쓴 팻말을 들고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다. 부모들은 그걸 보고 울었고, 자식들은 그걸 보고 울고 있는 부모를 보고 울었다. 보고 싶은 사람. 고향.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통일이 내일 찾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영화는 1984년에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제가 제시간에 도착한 것일지도 모른다. 길소뜸, 이라는 가상의 마을, 여기서 동진과 화영은 처음 만난다. 아직 어린 둘은 한눈에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난데없는 한국 전쟁이 그 둘을 갈라놓는다. 임신을 한 화영은 혼자 아이를 낳고 그만 그 아이를 잃는다. 동진은 피난에서 돌아와 내내 화영을 수소문하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만난다. 영화는 절반 내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플래시백으로 두 사람 사이의 지나간 시간을 오간다. 임권택은 여기까지 그리움에 가득 차서 찍었다. 거의 정확하게 절반, 두 사람은 강원도 어딘가에서 강가에서 시체를 건져내면서 하루 벌어 먹고 산다는 석철이라는 사내가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함께 만나러 간다. 그 여행은 환멸의 시간이 된다. 세 명은 그렇게 헤어진다. 아마 세 사람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저 그곳은 마음속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일까. 어딘가에는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디일까.

이 무서운 영화를 끝내고 나서 임권택은 그저 고향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내 말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영화 안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나는 여기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임권택은 다만 여기서 현실과 마주 대했을 뿐이다. <길소뜸>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집요하게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다시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 길을 바로 나서지는 않았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다. 임권택은 아주 커다란 원의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가장 멀리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 <씨반이>는 그 분명한 발걸음이다. 아마도 당신이 이 영화만을 보았다면 이 말이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하나의 계보를

만들어나가듯이, 그래서 연표를 작성하는 대신 마치 지층을 탐사하는 것처럼 따라간다면, 거기서 커켜이 쌓여 가는 방식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 거기서 무엇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 <씨반이>는 우리로 하여금 유교와 대하게 이끈다. 한국영화는 해방 이후 유교를 마치 처부쉬야 할 대상이더라도 한 것처럼 근대의 편에 서서 공격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경멸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잃었는가. 대답은 간단치 않다. 시간의 지층은 일시에 무너져 내렸고, 종종 텅 빈 채로 우리들의 지식은 구멍 뚫린 동굴이 되어갔다. 여기저기 나타난 동굴들. 그걸 서방세계의 근대의 지식 담론으로 메우려 애를 쓸 때 우리들을 여기에 이르게 한 조건, 환경, 체계, 기회, 아니 우리들 이라고 부르는 호명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차라리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층 저 밑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누구의 목소리인가.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속삭임. 임권택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한다. <씨반이>는 그 제목과 달리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문중 제례인 유교의 제사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다스리던 시대. 하지만 생명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 양반은 단지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내 제사를 치러줄 것인가. 그것이 이어질 때만 가문은 법을 따르고 이치에 맞을 것이다. 법과 도리는 그 모든 것에 상위입법하여 사람을 거느렸다. 임권택은 거기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씨반이>는 유교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영화이다. 그 절차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그 과정은 기품이 있으며 그 안에 예의를 담았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절차는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잔인하고 무정하게 진행된다. 그건 누구도 멈출 수가 없다. 단지 가진 것 없는 '썩것'이 따라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쥔 양반들도 그 앞에서 어떤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씨반이>의 마지막 장면은 엄정하고 어떤 흐트러짐 없이 무자비하게 진행된다. 아이를 낳은 씨반이는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 자기가 낳은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한밤중에 쫓겨나듯 그 집을 나선다. 안채의 열린 방문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 자신과 운운지정을 나누었던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다. 씨반이는 그 남자를 한 번 불러 보지도 못하고 떠나야만 한다. 임권택은 그 장면을 어떤 감정도 없는 작별로 만든다. 유교라는 지식, 지식의 명령, 잔인하고 아름다운 명령. 당신은 반문할 것이다.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나는 반복해서 말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분들이 살았던 세상. 그 세상의 끝자락. 거기서 임권택은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다. 조선이라는 시대. 그 시간에는 어떤 종류의 지식이 형식적 조건으로 항상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문제. 누구라도 순종해야 하는 규칙들과 명령. 그 안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어떻게 개별화되고, 또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얻으려는 개인들은 다시 어떻게 귀속되었는가. 지식의 전술은 일상생활의 디테일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해볼 수 있는 구석의 여백을 찾아서 거의 몸부림치듯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 <씨반이>에서 섹스는 에로틱한 몸짓이 아니라 거의 몸부림에 가까운 저항이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의 명령에 따라 부서지거나 무릎 꿇어야 한다. 조선이라는 하나의 문서 앞에서 해보는 가냘픈 저항과 그 안에서의 무자비한 통합의 이 무한정한 반복.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일까.

임권택은 예상치 않은 대답을 찾았다. 이청준의 세 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소설 중의 하나인 <서편제>는 하나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마치 이청준의 소설은 오직 임권택을 위해서만 쓴 것처럼 그렇게 작동하였다. 더 이상 아무도 판소리를 듣지 않은 시절에 접어들었는데도 떠돌이 소리꾼 유봉은 서로 배다른 남매 송화와 동호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떠돈다. 하지만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호는 그들 길을 떠난다. 세월이 한참 흘러간 다음 동호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송화를 찾아 나선다. 그러던 어느 소리꾼을 만나 누이가 장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여기가 영화의 첫 장면이다. 임권택은 한 편으로는 그들이 떠돌던 길을 따라가고, 또 한 편으로는 동호가 떠난 다음 유봉과 송화의 유랑 길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나와 누이를 찾으러 다니는 동호를 따라나선다.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플래시백 구조의 영화를 질서정연하게 만든 것은 물론 대가의 솜씨이다. 그러면서 임권택은 고향의 자리에 누이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고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때 눈먼 누이는 누구인가. 근대가 고향을 파괴하고, 삭제하고, 해체할 때 그것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누이는 불구가 된다. 불구가 된 전통, 번쩍거리는 섬광과도 같은 근대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눈엣. 누이는 자기 몸의 일부를 부수면서 그 몸으로 전통을 보존한다.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있든가. 그때 근대에 이끌려 떠나간 남동생은 누이를 찾기 위해, 고향에 되돌아오기 위해, 마음속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소리의 끈을 따라 되돌아오는 긴 여행길에 나선다. 고향은 거기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곳, 볼 수 없는 그곳, 하지만 고향의 소리는 부르고 또 부른다. 임권택은 고향을 여기서 한(恨)의 정서로 다시 재 정식화 해낸다. 거기에 담긴 그리움과 비애. 그때 소리는 고향의 알레고리가 된다. 마지막 장면. 동호는 눈먼 누이를 만난다. 하지만 그렇게 그리워하던 누이를 만났는데도 아는 체하지 않고 '심청전' 한 대목을 청해 듣고 싶다고 할 뿐이다. 송화는 복채를 잡고 첫소리를 낼 때 그 사람이 기다리던 남동생이라는 것을 한 귀에 알아챈다. 하지만 아는 체하지 않고 그 둘은 밤새 소리하고 장단 맞춘 다음 그냥 헤어진다. 그 한은 그렇게 남겨져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소리를 지켜 주고, 고향을 지켜주고, 누이의 예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송화가 먼 길을 다시 떠날 때 명창 김소희의 '구음(口音)'이 길고 구슬프게 끝 갈 데 없이 흐른다.

임권택의 진정한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춘향전>이다. 조선시대로부터 세대로부터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마당.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야기. 남도의 소리. 거기에 담겨있는 한과 흥. 이제까지 '춘향전'을 찍은 영화들은 원작소설을 어떻게 각색하느냐, 의 문제였다. (그리고 산업은 누가 성춘향 배역을 연기할지가 관심이었다) 임권택은 여기서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렸다. 소리를 찍어볼 수는 없을까. 그건 더도 덜도 아닌 마음속의 고향을 담아볼 수는 없을까, 라는 간절한 소망이다. 하지만 임권택이 선택한 예술은 영화라는 문법의 세계이다. 이 예술은 서방세계에서 태어나 근대의 논리로 발전한 테크놀로지의 기계 예술이다. 변증법과 총체성, 원근법과 기계의 운동. 그 안에서 판소리는 건널 수 있을까. 반대로 판소리라는 마당에서 영화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1975년에 녹음한 명창 조상현의 '춘향전' 소리 마당에서 가져온 대목들은 여기서 단순한 사운드 트랙이 아니다. 임권택은 영화가 소리를 다쳐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소리를 다친다는 말. 누군가는 이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끝내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그 말을 그 말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이상한 동어반복처럼 말하겠다. <춘향전>은 영화가 소리에 봉사하는 영화이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는 읽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춘향전>은 임권택이 고향에 돌아오는 길을 찾았음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이며, 여기가 고향임을 알리는 한바탕의 마당이며, 구구절절 모든 쇼트가 고향을 긍정하는 표현의 다스림으로 시작하여 진양조를 거쳐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를 지나 휘머리에 이르는 리듬이며 선율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한국영화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아름다움. 그저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여기에 이른 고향으로 온 길이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 멀리 손에 붙잡히지 않는 소리의 저편에 놓여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비애가 여기에 있다. <춘향전>은 임권택의 아흔여덟 번째 영화이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왜 그다지도 멀었을까.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맨 처음에 쓴 문장을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임권택을 말하는 것은 한국 근대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거기에 한 마디를 덧붙이겠다. 임권택의 영화를 보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마, 아마도 당신께서는 내 말에 이제는 동의할 것이다. **IIFF**

Cinematic Entrance to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m Kwon taek

Film critic, director

Jung Sung il

To describe Im Kwon taek is to ente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He is a survivor who journeyed through two centuries: the 20th century and our current one. There is no other way to describe it. The Korean Peninsula, a tiny country located at the frontier of Asia, underwent major incidents during the 20th century. Imperialist countries which gained control of modern technology trampled on a crumbling dynasty in this tiny peninsula and conducted war. Afterwards, the country fell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m was born in Jangseong, Honam, in 1934.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you were born decided your fate for history is out of one's control. And world history was out of the Korean Peninsula's control. Im Kwon taek was born into a rich family that could afford to provide him with the joys of Honam's pansori, calligraphy and rich cuisine, but Korea's liberation took almost everything from him. After the liberation, Im's relatives, who returned from their studies in Japan at the height of ideological conflict, spread communist ideas in his hometown. He followed his parents to Mt. Jiri and became a communist partisan, but left due to illness. However, his home was no longer his home, with his family marked as a "commie family."

At the age of eighteen, Im left home with what little money he had in his possession. With the ongoing war, the only place a little boy could go was Busan, a city already filled with refugees from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re, he picked up an A-frame and carried loads to feed himself. His shoulders ached so badly at night that he couldn't sleep. He began drinking with the money he made. He developed alcohol shakes at his young age. Im suffered from this his entire life. After the armistice, the merchants he befriended went to Seoul,

and he joined them. For whatever reason, they decided to open a movie production company. Im had no other options, and that was how he joined the movie business. It was much later that he learned Rhee Syngman's government promoted movie production to gain popularity from the people who were desperate for comfort in the ruins of war. Im Kwon taek later said the following, "When you are out shooting a movie, they feed you, give you a place to sleep and pay you money. That was good enough for me back then. When they asked me to direct a movie, I was scared. If the movie failed, I'd be starving again." That was in 1962. At the age of twenty nine, Im Kwon taek directed his first movie "Farewell to the Duman River." Fortunately for Im, this movie was a hit.

But that is not the end of his story. The year Im Kwon taek directed his first movie, Park Chung-hee rose to power through a military coup, and after approving a new constitution through a plebiscite, he announced his presidential candidacy at the end of the same year. That was the beginning of a long dictatorship. The Fourth Republic declared "Anti-communism" as their ideological identity and established various surveillance methods along with a guilt by association system. That was how Park Chung-hee arrested, imprisoned, threatened and silenced his political enemies. Tales of underground North Korean spies spread throughout South Korea, and newspapers printed articles about the appearances of armed communist guerrilla trained in North Korea. Terrified, Im had to make sure he didn't stand out. The 1960s were the golden age of Korean cinema. Famous directors like Shin Sang-ok, Kim Ki-young, Yu Hyun-mok, Kim Soo-yong and Lee Man-hui and a long list of movie stars emerged. Im continued to direct movies

with bated breath. Some were successful, and some barely made it to the silver screen. His name was almost invisible. He treaded lightly, as if he only planned on staying in Chungmuro for a brief moment. He went to work in the morning, as if he had a regular job, and went back to his boarding house after dark and went to sleep. Korean cinema began to decline. As the voice demanding democracy rose, the Yushin Constitution was approved, and a state of emergency was declared. Strict censorship laws were passed. Those with mone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plan led to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With statistics being part of the political agenda, overworked workers got their hands cut off and lungs destroyed. On November 13, 1970, Jeon Tae-il committed suicide by setting himself on fire after shouting, "We are not machines" in Cheonggyecheon. Until that year, in just a decade, Im had directed fifty movies. He was about to turn forty when he began contemplating about his job. His professional ethics demanded he make a movie he could be proud of putting his name on. And that movie was <Japcho (The Deserted Widow)>." However, it was ignored by the public, and the critics were baffled. Prints of this movie no longer exist. Im Kwon taek was deeply disappointed. Meanwhile, Korean cinema sank deeper into the muck. Only the movies that displayed loyalty to the government, anti-communist movies and the so-called Saemaeul movies passed censorship. People no longer went to the movies.

Im began directing movies that would meet the foreign film import quota desired by the government. He was submissive. But what people didn't know at the time was that Im was in the process of purifying himself. Ironically, when he was freed from the market's demand, he began carrying out the questions he had on filmmaking for every movie he directed and learned from his mistakes. He became the master of learning from one's mistakes. Perhaps the movie <Wangsimni (A Bygone Romance)> signaled the beginning. That was 1975. It was the same year that Emergency Measure No. 9 was declared. The same year the government executed people under the name of the Committee

for Re-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That same year, Im Kwon taek was carefully but constantly making leaps within himself.

By the time Im directed <The Hidden Hero> and <Jagko (Pursuit of Death)>, he was ready to face his own trauma. His father's generation and their youth. In the midst of the confusion caused by ideological conflicts just after the liberation, a reporter named Heo Yun witnesses people who are ending friendships simply based on their ideological differences. Heo Yun was in the gray zone, but after contemplating for a long time, he realizes that he needs to choose a flag of his own. This movie wasn't just a story. The details of everyday life following the liberation captured on film demonstrated that Im was on his path towards greatness. The light that blinks due to an electricity shortage at the bar as people have a drink frequently disrupts their conversation. The sudden darkness and fatigue that weighs down on the movie. Im Kwon taek's camera is neither close nor far. It is the distance that can only be described as "Im Kwon taek's distance." And it witnesses the time, the people during that time and the incidents those people face.

Im went even deeper in <Jagko (Pursuit of Death)>. An old man arrives at a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elderly who have no one else to care for them. That is how the movie begins. When he sees an old man with a crooked nose, he attacks him, grabs him by his collar and screams to return to their hometown. His name is Song Gi-yeol. He was a cop who was sent to capture North Korean partisans, and he successfully captures "Jagko" and secures promotion. But he gets distracted and Jagko slips away. Baek Gong san was his name. He hides his past as a North Korean partisan and lives as a fugitive. To rebuild his reputation, Song doesn't give up his pursuit of Baek. The movie uses cross-cutting and goes back and forth between Song Gi-yeol and Jagko and portrays their miserable state in the rehabilitation center. There is no good or evil. It just shows how the two men's lives wasted away as the pursuer and the pursued.

Every moment is constantly filled with grief. Im Kwon taek doesn't side with either man. This wasn't the objective of the movie. Im becomes desperate to understand his father's generation who wasted their

lives away. He understands being the victims of political games. But how did it feel to be played in that way? The last part of <Jagko (Pursuit of Death)> shows the future path of Im Kwon taek's movies. Song takes Jagko and boards the train to their hometown. But Jagko passes away, leaning against Song, before they reach their hometown. The journey home. But home moves further away. As if it is a mirage, it grows further out of reach. <Jagko (Pursuit of Death)> is the movie that tells you the path Im Kwon taek must take in the end. But that path will grow further out of reach.

However, Im didn't push forward toward his conclusion in a straight line. When he takes one step forward, he doubts himself and takes two steps back. That is how he has always been. He was slowly making progress, at a speed no one noticed, but after he directed <Mandala> the moment arrived for everyone to take notice. There are two Buddhist monks. Beob-un desperately wants to renounce worldly desires and reach enlightenment, which is why he is traveling in the middle of winter. He runs into another monk on a bus. Ji-san resembles an apostate, but he believes he must dwell among worldly people and help the bird escape from the bottle. Hinayana Buddhism and Mahayana Buddhism. There are two paths. Beob-un despises Ji-san at first, but as he grows closer to him, his contempt turns into sympathy, and when he realizes Ji-san is striving to reach enlightenment in his own way, however different that may be from his, he develops respect for him.

<Mandala> begins and ends on a road. It goes from a snow-covered temple to the red-light district in front of Seoul Station and from a beach in the middle of winter to a countryside road in the spring that leads to a hill where trees come to life. And in their journey, the two monks continuously ask each other about worldly desires and sudden enlightenment. That is what the entire movie focuses on: the scenery. Cinematographer Jeong Il-seong did not make the scenery look beautiful. When it snowed, he waited until the snow began to melt. A lotus flower revealed its beauty in the muddy pond. There lies Buddha's teaching. Im Kwon taek wholly accepted <Mandala> as a movie about the process of waiting.

Afterwards, Im returned to his hometown. Could someone still be waiting for him there? <Gilsoddeum> is the coldest and most heartless movie he ever directed. From June 30 to November 14, 1983, 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aired a live TV show called <Finding Dispersed Families>. The show went on for 453 hours and 45 minutes. No one expected that many people to show up at the broadcasting studio. Those who didn't get the chance to appear in front of the camera stood out in Yeouido Park all day long, holding up signs with their names and the names of family members they were looking for. Parents sobbed while watching, and their children sobbed while watching their parents. The people you miss. Your hometown. What would happen if the re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ctually took place? This movie was made in 1984, but it seems more fitting for present day.

Gilsoddeum is an imaginary town where Dong-jin and Hwa-young meet. Still young, they fall in love at first sight. But the Korean War breaks out, separating them. Hwa young has Dong jin's son, but loses him. Dong-jin returns after the war and goes looking for Hwa-young, but can't find her. They run into each other at Yeouido Park by sheer coincidence. Half of the movie revolves around their conversations, showing flashbacks of the two people's past. Im Kwon taek filled the movie with the feeling of longing. For the second half of the movie, the two people travel to Gangwon-do to meet a man named Seok cheol who makes a living by fishing out bodies in the river, thinking he might be their son. The trip turns into a time of disillusionment. The three people part ways. They will probably never meet again. Where is home? Does it only exist in your heart? Or is it lost forever? It must exist somewhere, so where is it?

After doing this movie, I believe Im Kwon taek continued his journey back home. Please don't misunderstand me. I only mean in his movies. I thought that was his conclusion, but I was wrong. What he did here was face reality. <Gilsoddeum> made one thing clear. He was no longer attracted by empty illusions. Instead, he began seeking a way home with tenacity. And as usual, he didn't take the direct path. Maybe I should put it this way. Im Kwon taek began moving in an enormous circle,

as if he decided to take the longest way possible. <The Surrogate Womb> was a part of that journey. You might feel confused if this is the only movie of his you have watched. But if you approach this as if you were tracing the genealogy of Im's movies by exploring different layers instead of just filling out a timetable, you will be faced with building blocks that Im put together. So what would you be facing? <The Surrogate Woman> leads us to face Confucianism. After Korea's liberation, Korean cinema sided with modern times and attacked and displayed hatred and contempt for Confucianism as if it was an object they had to destroy. So what was lost? The answer isn't simple. The layers of time collapsed, and more often than not, empty spaces left caves in our knowledge. The caves appeared everywhere. When we tried to fill them with discussions of modern knowledge from the Western world, everything that brought us where we are, circumstances, environment, systems, and opportunities; in other words, the word "we" began to shatter. I should say it began to collapse. And it was at that moment we heard someone's whisper from the layer deep down. Whose voice was it? The voice of our fathers. The whispers of our mothers. Im Kwon taek decided to pay attention to that voice. Unlike its title suggests, <The Surrogate Womb> deals mostly with ancestral rituals in Confucianism. It was the time the dead ruled the living. So where was life back then? Aristocrats did not demand offspring just to carry on the family name. Who would hold my ancestral rituals? Only when ancestral rituals were properly held could a family follow tradition and remain in order. Customs and duties took power over everything and ruled people. Im Kwon taek wasn't attempting to make a stance here. <The Surrogate Woman> is the most beautiful movie on Confucianism. The process is carried out in an orderly manner, and it is elegant and polite. And this beautiful process is carried out with precision, while being cruel and heartless. No one can stop it. It is what the penniless peasants must abide by and what the aristocrats in power may not resist. The final scene of <The Surrogate Woman> proceeds in an impartial, focused and brutal manner. After giving birth, the surrogate leaves the ho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as if chased out, without any chance of recovery and without even a glimpse of the baby she just gave birth to. Through the open door of the main house is the man she made love with to get her pregnant. But his head is down, unable to face her. She must leave without any chance of ever calling his name. Im Kwon taek portrayed their parting scene in a dry, emotionless manner. The knowledge known as Confucianism and its orders. It is both brutal and beautiful. You might ask,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the journey back home?" I will say once again that the journey home is the path that takes you to your mother and father. The world they lived in and the edge of that world. Im Kwon taek is tracing his way there. What kind of knowledge ruled over the peopl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name of formality? What was it like to live in that time with all the rules and orders everyone needed to abide by? How did individuals gain a sense of individuality? And how did individuals seeking their own places become included again? The strategy of knowledge seeped into the details of everyday life. Individuals found leeway from where they stood and struggled to do anything and everything they could. Sex wasn't portrayed as something erotic but a physical resistance in <The Surrogate Womb> They had no choice but to conform or be destroyed according to orders from the dead. The feeble resistance and brutal inclusion was infinitely repeated within the text called Joseon. Was there no hope? Im Kwon taek found an answer he didn't expect. One of Lee Cheong-jun's three short stories called <Seopyeonje> opened a path for him. I doubt it wasn't written with that in mind. It couldn't have been. But this short story by Lee Cheong-jun acted as if it was written for Im Kwon taek. People no longer listened to pansori anymore, but a traveling pansori singer Yu-bong takes his adoptive siblings Song-hwa and Dong-ho, and they wander around the country. But Dong-ho leaves them, unable to stand hunger anymore. After many years, Dong-ho goes searching for his sister Song-hwa whenever he can. One day, he meets a pansori singer who tells him Song-hwa has lost her sight. This is the opening scene of the movie. Im follows their travels, and after Dong-ho leaves, he

follows Yu-bong and Song-hwa. And then he returns to follow Dong-ho as he goes searching for his big sister. It was master craftsmanship that turned this complex disarray of flashbacks into a well-organized movie. Im Kwon taek turned the big sister into a symbolical home and listens to the call of home. Who is the blinded big sister? When modernism destroyed, deleted and dismembered the hometown, the big sister became disabled to shield herself from it. Tradition became disabled, and to protect herself from flashy modernism, she became blind. The big sister destroyed a part of her own body to conserve tradition for there is no other instrument to contain pansori. The little brother who left, seduced by modernism, now goes on a long journey back, following the traces of pansori, to find his big sister, meet the person in his heart and return home. Home was there. It is invisible, and it cannot be seen, but the pansori of home keeps on calling. Im Kwon taek re-formalized home in the sentiment of "Han." The longing and sadness that exist inside it. Pansori becomes an allegory for home. Dong-ho meets his blinded big sister at the end of the movie. He finally meets the sister he missed so much, but he doesn't tell her who he is. Instead, he asks her to sing a song from <Simcheongga.> Song-hwa recognizes her little brother that she had been waiting for the moment he grabs the drumstick and strikes the drum, but she doesn't show it. She sings to the drum of her little brother throughout the night, and the two part ways the next day. "Han" must remain undisturbed. Dong-ho realizes that is the only way for him to preserve pansori, home and his big sister's art. As Song-hwa departs on her long journey, the melancholy humming of master pansori singer Kim So-hee accompanies her. Im Kwon taek's true conclusion comes in <Chunhyang.> It is a folk tale that has passed down from the Joseon Dynasty, and every Korean is familiar with it. Pansori of Namdo (the south) and the joy and "Han" they carry. Until then, the biggest decision of the directors who made movies based on <Chunhyangjeon> was how to adapt the original story. (And the industry was always interested in who would play Sung Chunhyang.) Im Kwon taek made an unprecedented decision. Could he

capture pansori on film? It was out of desperate hope of wanting to capture the home he held in his heart on film. But the art form Im chose was a world of grammar called cinema. This art form was the art of technology and machinery which was born in the Western world and developed by modern reasoning. Could pansori survive in the dialectics, totality and perspective along with the operation of machines? And vice versa, could cinema function normally in the field of pansori? Songs taken from the 1975 recording of <Chunhyangga> by the pansori master Jo Sang-hyeon were not just soundtracks. Im believed cinema should never hurt pansori. Hurting pansori might be difficult to understand for some people. And no amount of explanation would make them understand those words. Some people might understand those words as they are. Let me use tautology and say it again. <Chunhyang> is a movie where cinema serves pansori. However, the opposite wouldn't work because <Chunhyang> is the sound of rejoicing that signals Im Kwon taek has found his way home and a festival that signals this is home. Every single shot is both rhythm and harmony which begins with an acknowledgement of positive expression of home, reaches jinyangjo (slowest pansori rhythm), moves ont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and finally reaches hwimori (fastest pansori rhythm). The beauty that has never been seen in Korean cinema. All you can say is beautiful, but there is also the sadness of having to accept no matter how close it may seem, home is located far beyond pansori, a place that can never be reached. <Chunhyang> is Im Kwon taek's 98th movie. Why did the journey home take so long? Therefore, I must repeat the first sentence I wrote. To describe Im Kwon taek is to enter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 will add one more thing. To watch Im Kwon taek's movies is to learn how to return home for those who have lost their way. Perhaps you will now agree with me. **I IFF**

북한영화 특별전 North Korean Cinema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정권 교체와 함께 느닷없이 찾아온 상대적인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영화를 통해 북한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국내에서 극장 개봉한 최초의 북한영화인 1985년 작 <불가사리>에선 북한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영화에 담아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중국과 북한의 합작영화인 2012년 작 <평양에서의 약속>은 북한의 춤과 무용을 엿볼 수 있으며, 임흥순 감독의 최신 다큐멘터리 <려행>은 탈북자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평화는 느닷없이 찾아왔지만,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아직도 멀리 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렵게 마련된 본 특별전은 평생을 적으로 배워온 북한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How much do we know about North Korea? We're going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North Korean culture and society, which suddenly entered an era of peace with the new regime. The very first North Korean film to be released in cinemas, <PULGASARI>, from 1985, shows how traditional Korean culture is used in film in North Korea. The 2012 North Korean-Chinese co-production <Meet in Pyongyang> is about North Korean dance and friendship. And Im Heung sun's latest documentary, <Ryeohaeng>, provides an opportunity to look into North Korean society in detail through the lives and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Peace came without warning, but true peace is still far off. However, we must continue to try and understand each other. This will be a special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North Korea, whom we were always taught were the enemy.

불가사리 PULGASARI



신상옥, 정건조 Shin Sang ok, Jung Geon jo

DPRK | 1985 | 95min | Fiction | Color

9. 28.(SAT) 11:00

줄거리

신상옥 감독이 북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제작하다가, 북한을 탈출하면서 미완으로 남게 된 영화를 북한의 정건조 감독이 완성한 영화 <불가사리>는 밥풀을 빚어 만든 인형이 쇠를 먹고 자라는 불가사리가 되어 농민들과 함께 폭압적인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2000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극장 개봉한 첫 북한 영화이기도 한 이 영화는 한국영화사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영화적 즐거움으로 가득한 괴수영화인 동시에 남북 간 이념의 경계와 차이를 넘어 민초들의 힘을 보여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Synopsis

Produced by Director Shin Sang ok under order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ntil his escape from North Korea, and finished by North Korean director Jeong Geon jo, <PULGASARI> is about a doll made from rice paste that eats iron and turns into a monster that joins farmers in the fight against tyranny. It was officially imported to South Korea in 2000 and is the first North Korean film to be officially released in theaters. It is a unique feel-good monster movie that goes beyond ideological boundaries and differences of the North and South and shows the power of grassroots movements.

평양에서의 약속

Meet in Pyongyang



시얼자티 아허푸, 김현철 Xierzhati Yahefu, Kim Hyun chul

DPRK, China | 2012 | 96min | Fiction | Color
9. 28.(SAT) 10:30

줄거리

조선민족무용을 전공한 중국인 무용가 왕샤오난은 자신의 춤에 부족함을 느끼고 8일간 평양으로 조선 춤을 배우러 간다. 그녀는 북한의 무용수 김은순에게 무용지도를 받으려 하지만 계속되는 오해들로 둘의 관계는 꼬여만 간다. 자신의 나라와 무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 <평양에서의 약속>은 북한과 중국의 연대라는 주제를 두 무용가의 우정을 통해 담아내는 작품이다. 한국무용을 모티브로 예술가의 삶과 방향, 각성의 시간을 담는다.

Synopsis

Wang Xiao, who specialized in North Korean dance, is dissatisfied with her skills and goes on an 8-day trip to Pyongyang to master her craft. She tries to learn from North Korean dancer Kim Eun sun, but through continuous misunderstandings, their relationship sours. But after they each realize that the other truly appreciates and cherishes dance and their own country, they sort out their misunderstandings and become true friends. <Meet in Pyongyang> is about the solidarity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old through the friendship of the two dancers. Korean dance is used as a motif to paint a picture of the artist's life, wandering and realizations.

려행

Ryeohaeng



임흥순 Im Heung soon

Korea | 2016 | 86min | Documentary | Color
9. 29.(SUN) 11:00 +GV

줄거리

2015년, 한국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간>(2014)을 연출한 임흥순 감독의 작품이다. 북한을 탈출한 10명의 여성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여정을 픽션과 판타지, 퍼포먼스가 뒤섞인 독특한 형식으로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감독은 남과 북,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매일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인식과 예술의 공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상영에는 감독과 다큐멘터리 출연자들이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를 찾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Synopsis

Directed by Im Heung soon who was the first Korean artist to win Silver Lion award at Venice Biennale in 2015 for his film <Factory Complex>(2014). A unique documentary that mixes fiction, fantasy, and performances to tell the story of 10 women who escape from North Korea to Seoul. Exploring their past and present journeys, the director seeks to depict the public and social role of art and provide a different viewpoint to the ever-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director and cast will be present at the festival for the screening.

IIFF 단편

IIFF SHORTS

올해 IIFF 단편 섹션은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도하여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기록한 중앙아시아 단편 다큐멘터리 3편이 상영된다. 이 다큐멘터리들은 모두 유목문화로부터 비롯된 마유를 소재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해 한국의 무형유산을 다룬 4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상영한다.

This year's IIFF shorts section is made up of two programs. First are three documentaries produced by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er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se documentaries are about horse oil, which is a part of nomad culture. We also have 4 animated shorts about intangible Korean cultural heritage prepared for families and children for the first time at the festival.

봄과 함께 달리다

Kazakhstan_Traditional Spring Festivals of Kazakh Horse Breeders



알렉세이 카멘스키 Aleksey Kamenskiy

Kazakhstan | 2017 | 17min | Documentary | Color

9. 28.(SAT) 13:30 +GV

줄거리

카자흐스탄에는 역사 유적들이 많은데, 특히 말 사육사들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것이다. 카자흐의 말 사육자들의 전통에 따라 카자흐인들은 젖을 내는 암말을 무리에서 분리시키는 '비에 바이라우(Biye Bay lau)'나 첫 번째 젖짜기 행사인 '아이기르 코수(Ayghyr Kosu)', 또는 종마를 무리에 합류시키는 '종마 짝짓기', 전통방식의 발효유 '크므스(Kymyz)'를 만들어 마시는 '크므스 무른드크크(Kymyz Muryndyk)' 등의 의식을 행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각각 서로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말 사육 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 해의 생산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Synopsis

The history and traditions of Kazakh horse breeders have been maintained since the Paleolithic times. The traditions include: biye bay lau, separating dairy mares from the shoal or the feast of the first milking; ayghyr kosu, joining a stallion to the herd or the stallion's wedding; and kymyz muryndyk, beginning to make and drink kymyz or festive of the first kymyz. Inextricably linked with one another, these traditions mark the beginning of a new horse-breeding cycle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Kazak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초원의 선물 '아이락'

Traditional Technique of Making Airag



멘드바알 투굴두르 Mendbayar Tuguldur

Mongolia | 2017 | 35min | Documentary | Color

9. 28.(SAT) 13:30 +GV

줄거리

암말을 말뚝에 매두는 사흘 동안 말젖을 발효시키는 의식은 잔치와 같다. 말 무리가 불어나고 마유주 아이락(Airag)과 같은 유제품이 더 많아지는 등의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다. 의례 기간 망아지들을 말뚝에 묶기, 암말 젖 짜기, 마유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 마유를 문질러 바르며 읊는 독송, 예식용 양고기 분배와 말 젖 짜기 잔치 등의 의식이 번갈아 치러진다.

Synopsis

The occasion of fermenting a mare's milk is celebrated with a feast that is held within three days of tethering foals. The ceremony is held to summon prosperity, to encourage horse herds to multiply, to wish for an abundance of airag (fermented mare's milk) and other dairy products, and to bless newborn animals. During the ceremony, the proceedings (tethering foals, milking mares, holding a milk libation ritual, reciting milk libation and anointment, and sharing the ceremonial mutton and mare milking feast) are carried out alternately.

크리스, 맛의 비밀

Kymyz—Traditional Beverage of the Kyrgyz People



아셀 이사예바 Asel Isaeva

Kyrgyzstan | 2017 | 20min | Documentary | Color

9. 28.(SAT) 13:30 +GV

줄거리

마유를 발효시켜 만드는 크므스(Kymyz)는 키르기스의 국민음료이다. 약 5,5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크므스를 최초로 마신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수사미르 계곡에서 말을 길들이던 다른 증거들과 더불어 크므스처럼 발효된 듯한 말짚의 흔적이 남아있는 염소 가족 자루가 발견되었다. 유목민들은 수 세기 동안 크므스 제조 방법을 비밀로 지켜왔다.

Synopsis

Kymyz, a traditional Kyrgyz beverage, is made of fermented mare's milk. The earliest found traces of kymyz are from Neolithic period (some 5,500 years ago). Found in the valley of Suusamyr other relics were goatskin leather bags with traces of mare's milk, indicating the presence of kymyz. Kymyz preparation was kept secret by nomads for centuries.

중아시아 유목, 말
그리고 음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위원

전봉수

좁은 의미에서의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일컫지만, 문화적 의미에서의 중앙아시아는 매우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 동쪽으로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서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을 넘어 터키, 남쪽으로는 아무다리야 상류 이남의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몽골과 바이칼 지역을 지나 레나 강 유역의 사하공화국까지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북 카프카스와 볼가 강 유역 역시 문화적 의미의 중앙아시아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중앙아시아의 한축이 레나 강 유역에서 시작해 바이칼 호수, 알타이 산맥, 천산산맥, 파미르 고원을 지나 힌두쿠시 산맥 북부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라시아의 중심, 그래서 중앙아시아라 불리는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중국, 아랍 및 페르시아, 인도, 슬라브 문화 사이에 끼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문화가 흐르는 곳이며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아시아의 심장이다.

이렇게 광대한 문화적 의미의 '중앙아시아'를 몇 개의 문화적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중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유목'이다. 모든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유목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투르크계와 몽골계 민족들 중 일부는 정주문화를 받아들이기 이후에도 유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에게 유목은 일상의 일부인 동시에 세계시장 속 국가경쟁력을 키워줄 문화콘텐츠의 원천이면서, 국가정체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몽골의 '나담' 축제, 키르기스스탄의 '세계 유목민 게임', 카자흐스탄의 '세계 유목민 축제' 등은 이 민족과 국가들의 유목전통이 현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정주문화 기반의 도시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목'이라는 개념은 흥미롭고 독특한 상상의

Central Asia Nomads, Horses, and Food

Asia Culture Center Expert Member

Jeon Bong su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다. 이를 간파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은 1980년대에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전통놀이인 '콕보루'를 <람보 3>의 소재로 사용하였고, 전 세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에 대항해 싸우는 말 타는 전사 람보를 보게 되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유목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확장 버전들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등장한다.

우리에게 중앙아시아의 '유목'이 상상 속 문화콘텐츠의 소재인 것과 달리, 일부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유목'은 일상이다. 다른 말로, 진짜 삶이다. 정주민 관점에서 이름 지어진 한자어 '유목(遊牧)'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동물을 기르는 일'이라 해석된다. 그래서 '놀다' 또는 '이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유(遊)'와 동물을 기르는 '목(牧)'으로 이루어져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주민의 관점에서 유목민을 욕심도 없이 정한 바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다. 우리만의 '노마드'에 대한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하지만 유목민도 계절마다 머물어야 하는, 정함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집이 있다. 이들의 삶은 상상하기 쉬운 유희자적인 삶과 거리가 멀다. 정주민인 농부가 한해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이 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는 것처럼, 유목민도 계절에 따라 정해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동물을 기르고, 동물들이 살피는 동시에 새끼를 많이 낳아 더 많은 동물을 소유하길 원한다. 이들에게 유목의 삶은 매우 규칙적이며, 자연의 영향에 의해 삶과 죽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자연 중심적이다.

유목민의 자연 중심적 삶은 "동물들이 먹고 마시는 풀과 물(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풀과 물을 주는 계절과 날씨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목민이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인 세계관은 음식, 집, 마을, 가족관계, 혼인, 갈등, 우주에 대한 이해, 민족에 대한 사랑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된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말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을 대하고,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대접하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몽골 다큐멘터리 <초원의 선물 '아이락'>에서 숨결만 빼고 동물의 모든 것을 활용하는 몽골인들이 말 젖 발효유 '아이락'과 아이락을 만드는 가족 통을 만들고 이를 다시 후손들에게 전승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다큐멘터리 <크므스, 맛의 비밀>에서는 천산산맥의 자일루(목초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nomadism is a gateway into interesting and unique imaginations. The Hollywood movie producers of the 1980s understood this and used the traditional nomad sport of "Kokboru" as subject matter in <Rambo 3>, and the world got to witness Rambo fighting on horseback against Afghan and Russian soldiers. Things related to Central Asian nomad culture pop up as subject matter in unexpected places. But in contrast to our imaginative understanding of "nomadism," for the people of Central Asia, "nomadism" is their way of life. In other words, it's their actual lives. The Chinese word for "nomadism" means "not having permanent residence and following the water and grass to raise animals." That is why it's made up of the Chinese characters that mean "to play" or "to move" and "to raise animals." Therefore, from our perspective, it is easy to misunderstand nomads as people who have no greed, no determination, no fixed destination, and are just wandering around. We are giving in to our own imagination about "nomads."

But nomads have places they must go according to the season, they have determination, and they have homes just like us. Their lives are far from the carefree ones that we imagine them to be. Just as a farmer prays for a good harvest as he farms his crops, nomads move to specific areas depending on the season to raise animals. They wish to fatten their livestock and breed lots of young to own more animals. To them, nomadic life is very structured and focused on nature, because the influence of nature and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life and death. The nature-focused lives of the nomads are closely related to "how to understand the grass and rain that the animals live off of" and "how to understand the seasons that provide that grass and rain." The world view of the nomads is made up of various subject matter including food, housing, villages, family relations, marriage, tensions,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love for one's peoples. It is through this context that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how they treat their animals, like their horses, and their culture of cooking and serving food to people. In the Mongolian documentary <The Gift of the Grassland

키르기스인들이 크므스를 만들고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에서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다큐멘터리 <봄과 함께 달리다>에서는 유라시아 평원의 한 북판에서 살아가는 카자흐인들의 유목전통에서 말과 크므스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이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는 상상 속 '중앙아시아의 유목'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정성을 느낄 것이다. **IIFF**

"Airag">, we will see how the Mongolian people make use of every part of their animals, including the fermented horse milk "airag," how they make the leather bags to produce the airag, and how those bags are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n the Kyrgyzstan documentary <The Secret of Kumis>, we will learn about the nomads that live on the Tian Shan mountain pastures and how they make kumis to serve to their guests.

Finally, in the Kazakhstan documentary <Running with the Spring>, we'll learn about the meaning of the horses and kumis in the traditional nomadic lives of the Kazakhstan people who live in the plains of Eurasia. Through these three documentaries, we will be able to feel the nomadic ways of the people of Central Asia. **IIFF**

배다리던 Little King



김혜미 Kim Hye mi

Korea | 2014 | 11min | Animation | Color
9. 29.(SUN) 13:30 +GV

줄거리

배다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조와 한 소년의 이야기.

synopsis

It is the story of a little boy's encounter with the King which happens by chance on a bridge made of boats.

아기장수 Baby Hercules



이경호 Lee Kyung ho

Korea | 2019 | 7min | Animation | Color
9. 29.(SUN) 13:30 +GV

줄거리

거드랑이에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기장수는 타고난 힘으로 마을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등 굶은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기성세대는 장차 아기장수가 마을에 해가 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고 외부세력과 음모를 꾸민다.

synopsis

Baby Hercules, who born with wings under his armpits, works hard for his village but the older generation, who do not accept of differences and are afraid of changes, are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village because of Baby Hercules. They eventually conspire with the external forces to get rid of Baby Hercules.

용이 될래요

Wanna be a Dragon



이경호 Lee Kyung ho

Korea | 2019 | 8min | Animation | Color

9. 29.(SUN) 13:30 +GV

줄거리

백암 웅덩이에는 3일만 지나면 천 년의 세월을 지나, 용이 되어 승천하는 이무기 두 마리가 산다. 하지만 인간이 이 광경을 보게 되면 그 세월은 허사가 된다. 아랫마을 아이, 철구는 부엉 영감으로부터 이무기의 존재를 듣고 절대 마을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다. 하지만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어른들에게 자신을 말을 증명하기 위해 부엉 영감과 약속을 어기고 마을 사람들을 백암 웅덩이로 데려간다.

Synopsis

In the Baek-am Pond, there are two thousand-year-old Imoogis(big old snakes) that rise as dragons after in only three days. However, a thousand years is wasted when humans see this sight. Cheol-gu who lives in the lower village have no friends, so he often comes up to the pond to spend time. One day he could watch a strange identity in the depths of the pond. He is heard that there are two Imoogis in the pond from the old Owl and promises not to talk to the villagers. But to the adults who don't believe what he says, he breaks his promise with the old owl to be credited by the adults and he tells about Imoogis to the villagers...

추모열전

Master of Archery



김상동 Dony Jokim

Korea | 2012 | 14min | Animation | Color

9. 29.(SUN) 13:30 +GV

줄거리

옛날 고리국 금와왕의 양자인 추모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활솜씨가 뛰어나 신의 아들로 불렸다. 추모에게 질투를 느끼던 왕자 형제들로 인해 추모는 변방으로 쫓겨나고, 고리국에는 재앙이 일어난다. 추모가 이를 해결하여 백성들의 영웅이 되자 질투심에 불탄 형제들은 추모를 없애려 한다.

Synopsis

There lived a boy called as a son of god, Chu-Mo in the nation of Gori, long time ago. He, adopted by the king Gumya had an outstanding arrow shooting skill since young. However, he was expelled by other jealousy princes to the frontier area. Afterwards, disasters began in the nation of Gori, and Chu-mo became a hero among the people for resolving the problems. However, his brothers tried to get rid of Chu-Mo out of jealousy.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지원

ARCHIVE PROJECT: INTANGIBLE HERITAGE CONTENTS PRODUCTION SUPPORT

65

올해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작년에 폐지되었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다시 되살린다. 대신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내에 있는 6만 5천여 건에 달하는 다양한 자료(영상 507건, 도서 425건, 음원 123건, 사진 65,026건)들을 기반으로 한 제작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본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이 선택한 자료들은 동시대의 시선에서 재해석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될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가 보유한 1960년대 16mm 기록영상을 기반으로 한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최초로 아카이브가 보유한 음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여 공연하는 음악 제작지원을 신설한다.

올해의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지원에 참여한 두 젊은 예술가는 올해 5월에 극장 개봉하여 영화전문가와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다큐멘터리 <김군>을 연출한 올해 최고의 신인 감독 중 하나인 강상우 감독과 2006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무관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후 13년간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지속해온 실력파 인디밴드 '뮤즈그레인'이다. 실력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낼 이 특별한 아카이브 콘텐츠들은 소비적인 성격을 띠는 축제에 생산적인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창조적 아카이브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드러낼 줄 것이다.

At this year's festival, we will revive the archive project that was canceled last year. The 65,000 records (507 videos, 425 books, 123 musical records, 65,026 photographs) in the intangible digital archives will be the foundation for producing this new project. Through this program, young artists will get the opportunity to reinterpret archive materials to create new content for modern audiences. For the first time, the 16mm film from the 1960s films in the intangible digital archives will be used to produce new music that will in turn be used for performances at the festival.

The young artists taking part in this year's archive content production support program are Kang Sang woo and the indie band 'MuzGrain'. Kang Sang woo directed <KIM GUN>, which had its theatrical release in May and received high praise from viewers and critics. MuzGrain is known as the unofficial king of the 2006 MBC Campus Song Festival and has been active in the Jeollabuk-do region as a skilled indie band since then. This special archive contents created by talented young artists will highlight the function of the festival as a creative archive location and add value to the festival's production platform.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 강상우

Documentary : Kang sang woo



9. 28.(SAT) 15:00 +GV

강상우

서울 출생.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한 뒤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중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단편 <우리는 없는 것처럼>(2016), <안마도>(2014), <클린 미>(2014)를 감독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최 신작 <김군>(2018)으로 2018년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2018년 올해의 독립영화상, 2019년 무주산골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하며 올해 최고의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감독이다.

Kang Sang woo

Born in Seoul, he studied physics and computer science in college and then worked as programmer after graduating. That's when he began making films. His filmography includes the short films <As If We Don't Exist>(2016), <Anmado>(2014), and <Clean Me>(2014). His latest work, <KIM GUN>(2018), which is about the Gwangju Uprising,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18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the 2018 This Year's Independent Film Awards, and the Audience Award at the Muju Film Festival. He received high praise, being called "one of the most promising new director of this year."

작품에 대하여

1962년, 충청남도 문화과는 충남 지역 무형문화재들의 공연을 기록 촬영한다. 16mm로 촬영되어 일부만이 남아 있는 이 영화에는 어린 예인이 북춤 공연을 펼친 모습이 남아있다. 그의 이름은 채향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인 그는 50여 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다. 영화는 춤에 대해 "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라 말하는 현재의 그를 찾아간다.

About film

In 1962, Chungcheongnam-do Culture Division recorded the intangible heritage performances of Chungcheongnam-do. It was recorded as a silent film and only part of it remains, which depicts a young artist performing the drum dance. The dancer's name is Chae Hyang soon. A mast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27 "Seungmu" and No. 97 "Salbumichum," she has been dancing for over 50 years. The film is about the search for this woman, who once said, "If I don't dance, I can't endure anything."

연출의 변

1962년 대전의 한 사찰에서 촬영된 한 릴의 필름이 있다.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자막이 없었더라면 완성된 작품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이 '영화'는 촬영 당시의 현장음이나 사후에 추가된 내레이션 없이, 춤과 기악을 즐기는 여섯 살의 채향순을 비롯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예인의 몸짓을 초기영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여기서 기록된 것은 전통 무용에 대한 정보가 아닌, 오로지 현재의 순간만을 위해 복무하는 몸짓들이 주는 순수한 즐거움의 감정이었다. 그 몸짓의 주인공을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Director's Statement

A roll of film was found in a temple of Daejeon. This 'film' was difficult to be regarded as a work without subtitles marking beginning and end. it 'recorded' gestures of unknown artists and Chae Hyang soon, 6-year-old girl enjoying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instrumental music, without any ambience sounds and a later-recorded narration. I felt the records were not the information of Korean traditional dance, but a kind of pure emotion or pleasure created by gestures enjoying only for the present. I thought this work should be begun from the meeting with the gestures' owner.

음악 제작지원 : 뮤즈그레인

Music : MuzGrain



9. 28.(SAT) 15:00 +GV

뮤즈그레인

그대 마음에 따뜻한 위로 '뮤즈그레인'. 팝을 기반으로 락, 포크 등의 장르를 뮤즈그레인만의 스타일로 세밀한 노랫말과 함께 녹여내고 있다. 작곡과 기타 그리고 보컬을 맡고 있는 김승재, 역시 작곡과 피아노를 맡은 변동준, 바이올린 엄유경, 드럼 최은석, 베이스 고은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에 대하여

뮤즈그레인은 '이별'을 주제로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3곡의 음악을 선택했고, 이 곡들에 영감을 얻어 새로운 3곡의 노래를 작곡, 편곡했다. <금다래 꿈> - <춘향가 동풍이 눈을 녹여 가지 가지 꽃이 피네> - <몽금포 타령>으로 이어지는 곡의 구성은 슬픔과 한의 정서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3곡의 노래는 축제 기간 중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된다.

MuzGrain

'MuzGrain' will warm your heart. Pop and folk-based rock music is a unique MuzGrain style that melts hearts with descriptive lyrics. The band is made up of Kim Seung jae, the songwriter, main guitarist and lead vocalist; Byeon Dong jun, in charge of composing and piano; Eom Yu gyeong, the violinist; and Go Eun hyeok, the bassist.

Musician's Statement

MuzGrain chose three songs with the theme of farewell from the digital archive and will use them as inspiration to compose 3 completely new songs. <Geumdarae Kkung> - <Chunhyangga: 'The East Wind Melts the Snow and the Eggplant Flower Blooms'> - <Munggeumpo Taryeong> are about sadness and long-held, unresolved resentment. The three new songs will be released at the festival showcase for the first time.

편곡의 변

금다래 꿈

<금다래 꿈>은 황주에 가까운 금다래봉을 의미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 사랑 노래이다. 황주 근처에 금다래봉과 이용녀봉이 마주 보고 있는데, 이 두 봉우리는 옛날에 서로 사랑하던 이용녀라는 처녀와 어떤 총각이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변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다. <금다래 꿈>은 이들 처녀 총각의 애달픈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황해도 출신 민요 명창 양소운에 따르면, "금다래졌네"라는 가사는 부모 몰래 서로 오가던 산길의 금잔디가 닳아졌다는 뜻이라고 한다. 뮤즈그레인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애잔한 정서가 잘 드러나도록 원곡보다 슬픈 느낌을 더 극대화하는 편곡을 했다.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졌네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졌네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졌네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졌네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 꿈 금다래졌네

몽금포 타령

<몽금포 타령>은 황해도지방의 민요이다. 몽금포는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남쪽에 있는 항구로 어업이 성행하고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몽금포 타령은 이곳의 정경과 어부들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다. 장단은 중모리장단으로 되어 있고, 네 장단에 메기고 두 장단으로 받는 형식으로 메기는 부분은 길고 합창으로 받는 부분은 짧은 편이다. 바다에 나간 님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생사를 알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뮤즈그레인은 모두의 안녕을 비는 마음을 몽금포 타령에 담아보았다.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님 만나 보겠네.
에헤이요 에헤이아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에헤이요 에헤이아

바람새 좋다고 돛달지 말고요 몽금이 앞바다 노다나 가소래.
에헤이요 에헤이아

춘향가 中

동풍이 눈을 녹여 가지 가지 꽃이 피네

판소리 <춘향가>는 남원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과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노래로, 현전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음악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힌다. 그 중 <옥중가(獄中歌)>는 춘향이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고 이 도령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옥중망부사(獄中望夫詞)>와 춘향이 꿈속에서 황룡묘에 가서 이비(二妃), 녹주(綠珠) 등을 만나 정절을 칭송받는 <옥중몽유가(獄中夢遊歌)>로 짜여 있다. <옥중망부사>에는 <옥방형상>, <동풍가>, <천지삼거>, <쑥대머리> 등이 있는데, 창본에 따라 다르다. 뮤즈그레인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노래한 <동풍가>를 재해석했다.

1. 동풍이 눈을 녹여 가지가지 꽃이 피네
두견화는 나비를 보고 웃는 모양 반갑구나
놀과 함께 보드라는 말이나
놀과 함께 보드라는 말이나

어쩔거나 님이 그리워
어쩔거나 꿈도 빌어 볼 수 없구나
놀과 함께 듣고보고 놀과 같이 얘기를 해
상사일념 들리고자 모진 간장 불이 붙어
어쩔거나 어쩔거나

2. 잎이 지고 서리치니 구추단풍 시절인가
홀로 피는 저 국화는 능상고절(凌霜高節) 그 아난가
놀과 함께 보드라는 말이나
놀과 함께 보드라는 말이나

어쩔거나 님이 그리워
어쩔거나 꿈도 빌어 볼 수 없구나
놀과 함께 듣고보고 놀과 같이 얘기를 해
상사일념 들리고자 모진 간장 불이 붙어
어쩔거나 어쩔거나

3. 어쩔거나 님이 그리워
어쩔거나 꿈도 빌어 볼 수 없구나
놀과 함께 듣고보고 놀과 같이 얘기를 해
상사일념 들리고자 모진 간장 불이 붙어
어쩔거나 어쩔거나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무형유산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영상 미디어 콘텐츠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보유 자료 혹은 문화공간 등에서 실연된 무형유산을 촬영한 작품을 소재로 다양한 영상들이 모집되었다.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영상물 중 총 5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해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기간 중 상영되며, 더불어 시상식이 진행된다.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 예심 심사위원

오성한 국제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장
이주봉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교수
조지훈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총감독

작품 상영

09. 29.(SUN) 15:30 / 마당놀이 야외상영장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 본심 심사위원

김연수 국립무형유산원 원장
유기하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장
형 건 EBS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시상식

09. 29.(SUN) 17:00 / 얼썬마루 대공연장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 본선 진출작



강강술래를 아시나요?

이호진

Korea | 5min | Documentary | Color

사람들은 과연 익숙한 '강강술래'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실험 아닌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하나의 짧은 질문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모르는 무형유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기와는 예술이야

우현경

Korea | 2min | Documentary | Color

평소에 관심이 많은 기와의 아름다움과 일본에 전수된 기술을 역으로 가져와서 명맥을 이어가는 아픔을 알리고 싶었다.

IIF YOUTUBE CONTEST



만신-신과 함께 살아가는 무녀 이야기

봉정우

Korea | 1min | Documentary | Color

김금화씨를 다룬 <만신>이라는 다큐멘터리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판타지 영화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만신 김금화씨를 소재로 한 편의 판타지 영화 트레일러를 제작하였다.



미인별곡

명준희

Korea | 9min | Documentary | Color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를 배경으로 한국을 빛낸 여러 예인과 그들의 작품을 기리고 한국의 무형유산인 진주 검무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만든 작품이다.



아현장석

이재웅

Korea | 5min | Documentary | Color

아름다운 가구 속에는 장석이 있다. 장석은 나무와 나무를 이어주고 흠집을 메꿔주기도 한다. 또한, 우리 조상의 삶과 정신도 녹아있다. 이런 장석을 50여 년 이상 작업해오고 기술을 후대까지 전승하려고 애쓰는 장인의 작업을 영상에 담았다.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

특별상영

EIDF

2019년 EBS국제다큐영화제(EIDF)에서 상영한 무형유산 섹션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중 수작 2편을 특별상영한다.



발리: 천상의 울림

Bali: Beats of Paradise

리비 첵 Livi Zheng

USA | 2018 | 56min | Documentary | Color

9. 28.(SAT) 17:30

줄거리

발리의 유명 댄서이자 뮤지션인 노만 웬텐은 은퇴 전 발리의 사라져가는 신성한 음악과 춤 전통에 경의를 표하는 도전을 시작한다. 마침 독특한 사운드를 찾고 있던 그래픽 미상 수상 가수 주디스 힐이 노만에게 음악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한다.

Synopsis

Nyoman Wenten is one of Bali's most accomplished and versatile dancers and musicians. He wanted to leave something special behind before retiring to Bali so he set out to pay homage to the sacred yet fading tradition of Balinese music and dance. Coincidentally, Grammy Award-winning singer Judith Hill was looking for a distinctive sound for a new piece of music she was composing. She approached Wenten to discuss the blending of musical styles.

SPECIAL SCREENING

EIDF

2 special documentaries chosen at intangible heritage section of 2019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will be screened here.



샤먼 로드

Shaman Road

최상진 Choi Sang-jin

Korea | 2018 | 105min | Documentary | Color

9. 28.(SAT) 18:30

줄거리

다른 나라에 태어났지만 도플갱어처럼 똑같은 삶의 행로를 걸어온 두 여인이 있다. 프랑스인 샤먼 콜레뜨와 한국인 무당 박성미. 이들은 2014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샤먼니즘축제에서 서로를 만난 뒤, 그들의 특별한 능력이 세상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한 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Synopsis

Born in different countries, two women find that they have each walked down surprisingly similar paths. After meeting each other at the 2014 International Shamanism Festival in France, Colette and Sung-mi realize that their special abilities have a purpose: they were gifts given from God to comfort and soothe the pain of others. to comfort and soothe the pain of others

특별상영

문화유산채널 프로그램

76

문화유산채널 프로그램

K-Heritage.tv channel program

문화유산채널이 제작한 프로그램 중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기록한 영상을 상영한다.

Screening of programs produced by the K-Heritage.tv channel that focus on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ECIAL SCREENING

K-Heritage.tv channel program

77

장인 아트 오브 디테일

Master, Art of Detail



Korea | 2018 | 100min | Documentary | Color

9. 29.(SUN) 11:00

줄거리

가장 순수하고 유일한 하나의 존재를 만들기 위해 고집스럽게 작업에 임하는 장인의 모습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소개한다.

* 본 다큐멘터리는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한국방송전파진흥협회의 제작지원으로 문화유산채널과 스카이TV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했음

Synopsis

Master craftsmen and their efforts to produce the purest and most unique of things are introduced to the world through various projects.

* This documentary was created and produced jointly by K-Heritage.tv channel and Sky TV in 2016 with support from the Korea Communication Agenc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특별상영

무형유산 VR

무형유산 V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R

최신영상기술인 VR과 무형유산이 만났다! 문화유산채널이 제작한 최신 VR 영상을 비롯하여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제작한 VR 영화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무형유산의 현장을 접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Cutting-edge VR technology mee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will be a special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site whe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reated through special VR footage produced by the K-Heritage tv channel and Korea Academy of Film Arts

상영장소

얼쑤마루 1층 VR 체험존

상영시간

9. 27.(금) 16:00 - 19:00
9. 28.(토) 11:00 - 19:00
9. 29.(일) 11:00 - 17:00



Screening location

Eolssumaru 1st Floor VR Experience Zone

Screening time

Sep. 27.(FRI) 4:00 pm - 7:00 pm
Sep. 28.(SAT) 11:00 am - 7:00 pm
Sep. 29.(SUN) 11:00 am - 5:00 pm

웨딩 Wedding

김명화, 인병훈

Korea | 2019 | 32min | Fiction | Color

5년 전, 열여덟 소녀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녀의 허망한 죽음에 가족들은 오래도록 아픈 시간을 보냈다. 짧았던 삶을 위로하고 저승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은 소녀의 영혼결혼식을 올리기로 한다. 한국에서의 영혼결혼식은 이승에서 삶이 저승에서도 계속된다는 믿음으로 행해진다. 소녀의 영혼결혼식은 동해안 오구굿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제작한 VR 극영화 <웨딩>은 오구굿을 바탕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저승혼사굿(영혼결혼식)을 재현하고 있다. 무녀로 출연한 빈순애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기능보유자이며 양중(남자무당)으로 출연한 김장길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영해별신굿놀이 예능보유자이다. 그리고 무악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동해무속사물놀이패인 푸너리가 연주를 맡았다.

SPECIAL SCREE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R



문화유산채널 - 360° VR 콘텐츠



승무 Seungmu

한국의 민속 무용, 승무 /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 04'06"

Seungmu(Monk's dance) a dance performed by a performer in a monk's rob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7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이다. 춤의 형태는 의식성이나 종교성, 생산성, 극성, 놀이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홀춤 <독무(獨舞)>로 춤사위가 살풀이춤과 유사함을 지니고 있어 기녀들에 의해 예술적인 춤의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진다.

농악 Nongak

한국의 공연 예술, 농악 / 국가무형문화재 제11호 / 03'22"

community band music, dance and rituals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11

농촌에서 다 같이 농사일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거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농민들의 음악으로 한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민속예술이다. 팽과리, 징, 장구, 북, 소고 등 타악기를 합주하면서 행진하거나 춤을 추며 연극을 펼치기도 하는 기예가 함께하는 종합예술이다.

남사당놀이 Namsadang nori

남사당놀이 /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 05'03"

Namsadang nori(Vagabond troupe's performanc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3

남사당놀이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이 구성된 유랑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까지 행했던 놀이이다.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서 당시 사회에서 천대 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서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특별상영

무형유산 VR

문화유산채널 - 360° VR 콘텐츠



부석사 Buseoksa Temple

한국의 전통 사찰, 국보, 보물 등 12개 등록 / 03'07"

Busseoksa Temple (Sansa, Buddhist Mountain Monasteries in Korea), 12 Registrations of National Treasure, Treasure, etc.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사찰로 통일 신라의 승려 의상이 창건하였다. 한국 화엄종의 본찰로 초조인 의상 이래 그 전법 제자들에게 의해 지켜져 온 중요한 사찰이다. 의상은 676년 부석사에 자리잡은 뒤 입적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법을 이은 법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따랐다.



대승폭포 Daeseungpokpo

설악산 대승폭포 / 명승 제97호 / 04'

Daeseungpokpo Falls in Seoraksan Mountain, Scenic Site 97

해발 740m 폭포, 높이 약 88m의 웅장한 폭포로서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함께 한국 3대 폭포의 하나이다. 대승폭포에 대한 한시(漢詩)로 이명한 (李明漢:1595~1645)의 寒溪瀑布 贈玉上人(한계 폭포 증옥 상인) 등 11명의 11수가 전해져 역사 경관적 가치를 높여 주고 있다.



토왕성폭포 Towangseongpokpo

설악산 토왕성폭포 / 명승 제96호 / 낮 05'24" + 일출 02'40"

Towangseongpokpo Falls in Seoraksan Mountain, Scenic Site 96

토왕성폭포는 외설악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적봉 남쪽 토왕골에 있다. 토왕성은 『여지도서』 『양양 도호부』 고적조에 토왕성(土王城) 부(府) 북쪽 50리 설악산 동쪽에 있으며, 성을 돌로 쌓았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화채봉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이다.

SPECIAL SCREE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R

중앙아시아 - 360° VR 콘텐츠



마나스 Manas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연도 2013년

키르기스인의 3부작 서사시 중 하나로, 마나스는 뽕뽕이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의 나라 키르기스로 결집시킨 서사시 속 영웅이다.



샤쉬마콤 음악 Shashmaqom Music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연도 2008년

6개의 마콤(maqom)이라는 뜻으로, 보컬과 기악, 멜로디와 리듬에 관용구와 시로 된 가사가 있는 음악 장르이다.



카타 아술라 Katta Ashula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연도 2009년

'큰 노래'라는 뜻의 카타 아술라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계곡에 사는 다양한 민족 정체성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전통노래이다.



영상축제가 열리는 주말 동안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독창적이고 세련된 손재주로 만든 다채로운 물건들이 관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푸드트럭도 함께 꾸려진다.

A flea market will be open throughout the film festival. Creative and refined handmade products will be available for audiences. There will also be food trucks providing delicious food.

행사일시

9. 28.(토) 11:00 - 19:00
9. 29.(일) 11:00 - 17:00

Event hours

Sep. 28.(SAT) 11:00 am - 7:00 pm
Sep. 29.(SUN) 11:00 am - 5:00 pm

2019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프로그램북

IIFF 2019 Program Book

발행일 2019년 9월 27일

발행처 국립무형유산원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사무국)

발행인 김연수

기획·편집 (재)무주산골문화재단

번역 (주)푸르모디티

인쇄 (유)씨앤씨월드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http://iiff.iha.go.kr> | www.nihc.go.kr | iiff2019@naver.com


이 프로그램북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의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모든 내용의 상업적 이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2019 인류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 국제컨퍼런스

2019. 10. 4. FRI - 10. 5. SAT
국립무형유산원의 일췌마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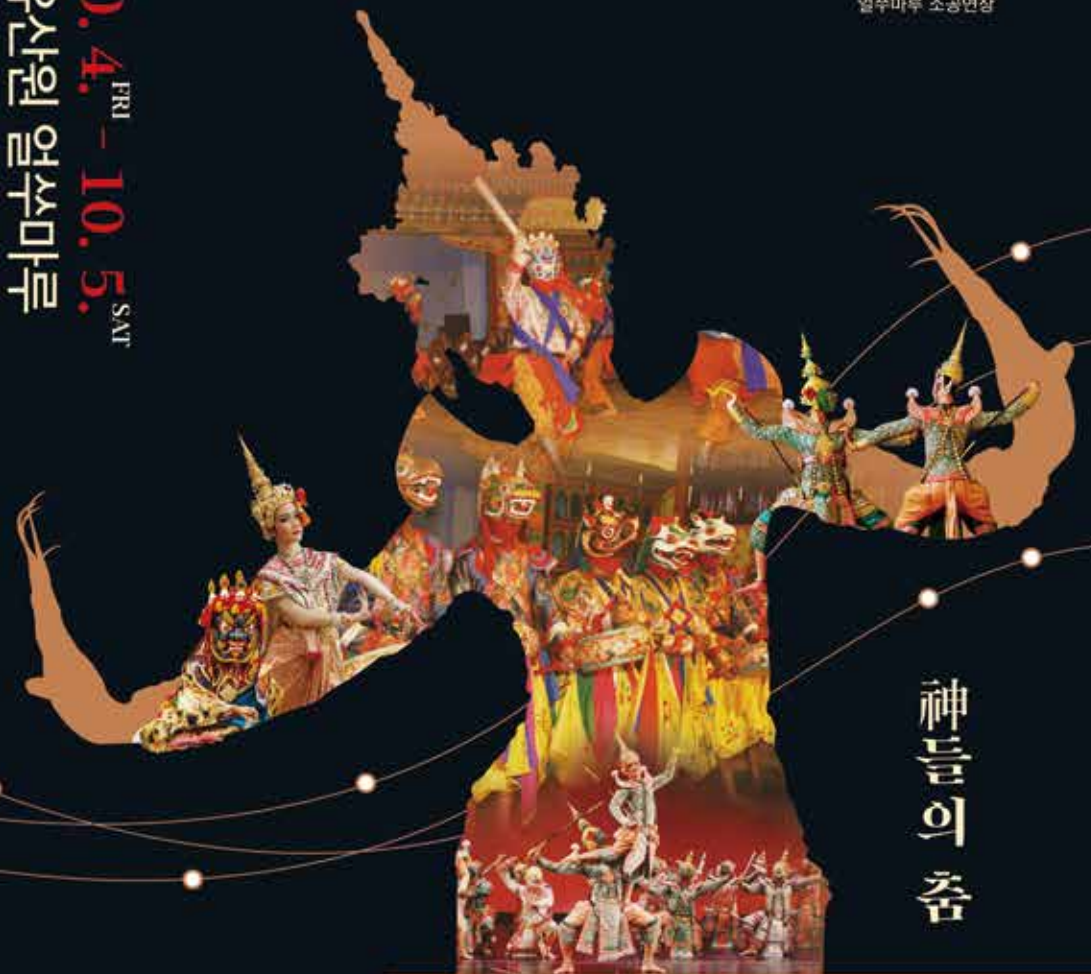
 태국 온 가면극
10. 4. (금) 19:00 대공연장

 부탄 다편체의 가면 복춤
10. 5. (토) 14:00 대공연장

 한국·태국·부탄 합동공연
10. 5. (토) 19:00 대공연장

컨퍼런스

아시아 가면연희의 현재와 미래
10. 4. (금) 10:00 ~ 17:00
일췌마루 소공연장



神들의 춤

아시아의 가면연희





Mask Performance in Asia

문의/문의

063)280-1500~1 www.nihc.go.kr

무료관람 8세 이상

※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후원   태국 문화부  부탄 내무문화부

10.11.금 - 13.일

전시 10.11. - 20.

장소 국립무형유산원(전주)

2019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代代孫孫
손손

Festival of Kore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9



전시



공연



체험



학습

주최



주관



후원



후원



후원



후원



2019
국립무형유산원
토요상설공연

2019.
10. 12.~26.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얼쑤마루 소공연장

탄생
100주년

명인
오마주



10. 12. (토)
거문고산조의 명인 _ **한갑득** 1919~1987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10. 19. (토)
경기무악의 명인 _ **조한춘** 1919~1995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10. 26. (토)
가야금산조의 명인 _ **김춘지** 1919~1980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공연예약 및 문의 | 전석 무료
063-280-1500~1 www.nihc.go.kr

2019년 문화재청 정부혁신 계획

삶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

신뢰받는 정부



똑똑한
사물인터넷으로
숨춘한 문화재
안전시스템 확대



국민이 즐기는
문화유산 오감만족
첨단 체험서비스 확대

사회적 가치 구현



100년의 항일독립
문화유산을
국민과 누림



공개동굴내
무장애 시설
시범설치 추진



찾아가는 민속문화재
재난 예방 교육

참여와 협력



문화재 보존
행복주머니
씨앗가꾸기



국민이 믿고 맡기는
문화유산 지킴이



Ultimate Luxury and Comfort

JEONJU THE CITY HOTEL
더시티호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총경로 65
예약문의 063-288-8410

주 최 Hosted by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주 관 Presented by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운영사무국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Operation Office

후 원 Supported by

